

2026 경제 산업 전망

I. 국내외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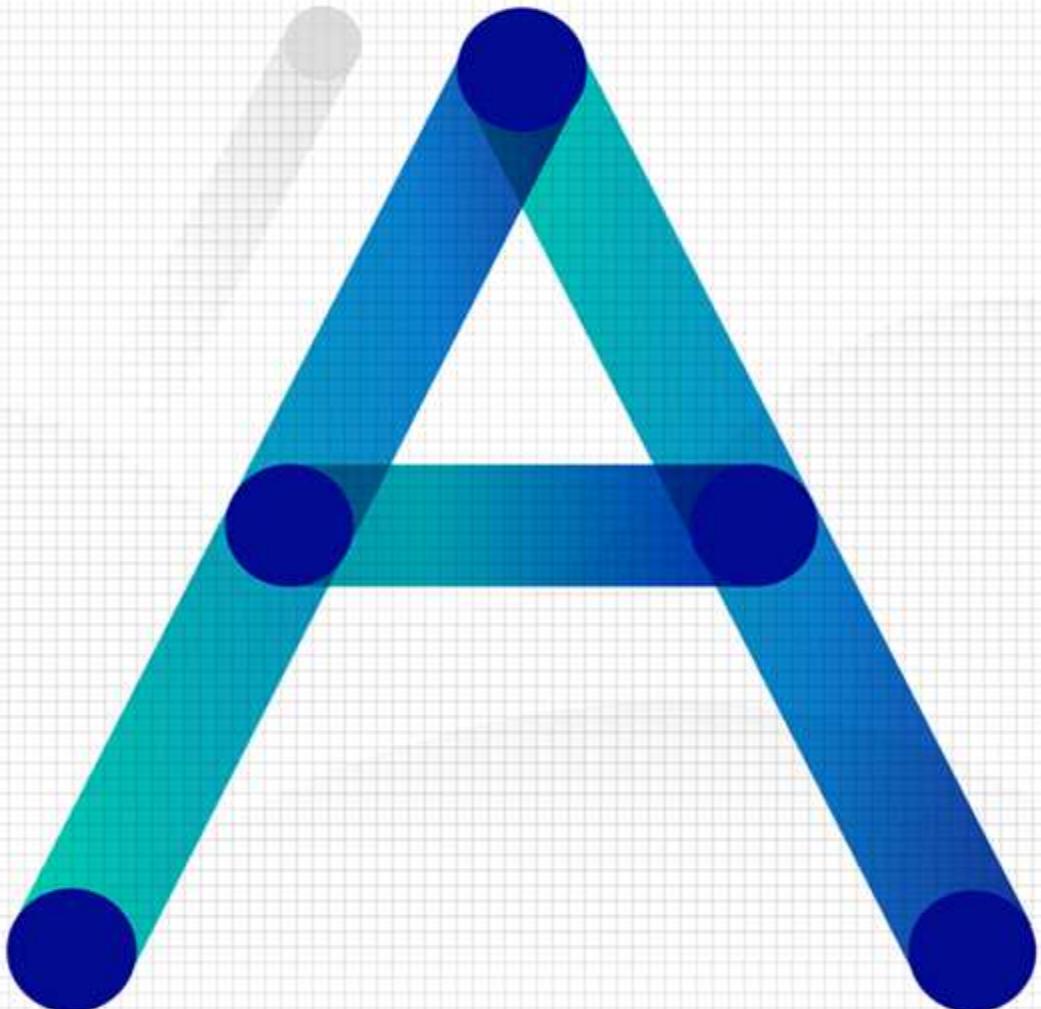
- 가. 세계 경제전망
- 나. 국내 경제전망

II. 주요 산업별 전망

- 가. 수주산업
- 나. 전략산업
- 다. 전통수출산업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종서(6252-3586)

수석연구원 김윤지(6252-3607)

선임연구원 성동원(6252-3611)

책임연구원 황광택(6252-3605)

인프라금융부

선임연구원 강정화(6255-5232)

혁신성장금융1부

선임연구원 이미혜(6255-5404)

< 목 차 >

<요약>	i - v
I. 국내외 경제전망	1
가. 세계 경제전망	1
(1) 경제성장	1
(2) 세계교역	3
(3) 금융시장	4
나. 국내 경제전망	7
(1) 경제성장	7
(2) 수출입	8
II. 주요 산업별 전망	9
가. 수주산업	9
(1) 조선	9
(2) 해운	12
(3) 해외건설	14
(4) 인프라	16
(5) 방위산업	18
나. 전략산업	20
(1) 반도체	20
(2) 배터리	22
(3) 태양광	24
(4) 해상풍력	26
(5) 바이오	28
(6) 미래모빌리티(친환경차)	30
(7) 항공·우주	32
(8) 로봇	36
(9) K콘텐츠	38
다. 전통수출산업	40
(1) 일반기계	40
(2) 석유화학	42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4
(4) 철강	46
(5) 석유제품	48
(6) 디스플레이	50
(7) 통신기기	52

<요약>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 경제전망

□ '26년 세계경제는 완화된 금융여건과 물가안정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내며 3% 초반대 성장 전망

- ('25년)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유럽의 재정확대, 중국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예상보다 성장세가 개선되어 전년 대비 3.2% 성장
- ('26년) 세계경제는 주요국 금리인하로 금융여건은 완화되겠으나, 고용 및 교역성장둔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3% 초반대 성장
- (위험요인) ① 정책불확실성 장기화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지속,
②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공급망 교란 및 성장 잠재력 저하,
③ 인공지능(AI) 과잉투자 조정시 자산시장 급락 가능성,
④ 지정학적 긴장·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등
- (교역) 세계 교역량은 미국 관세효과 본격화, 공급망 분절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 초중반대 성장 예상

※ 세계 교역증가율(%), IMF, 상품·서비스 기준): ('24) 3.5 → ('25) 3.6 → ('26^f) 2.3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IMF	IMF	OECD	한국은행	IMF
전세계	3.2	3.1	2.9	2.9	3.2
선진국	1.6	1.6	2.9	-	1.7
미국	2.0	2.1	1.7	2.1	2.1
유로	1.2	1.1	1.2	1.1	1.4
일본	1.1	0.6	0.9	0.5	0.6
한국	0.9	1.8	2.1	1.8	2.2
신흥국	4.2	4.0	-	-	4.2
중국	4.8	4.2	4.4	4.4	4.2
인도	6.6	6.2	6.2	-	6.4

주: IMF(10월), OECD(12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나. 국내 경제전망

□ '26년 국내경제는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은 다소 둔화되겠으나,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 후반대 성장 전망

- (민간소비) 금리인하 등 금융여건 완화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 1% 후반대 증가 예상
- (설비투자) 기업들의 미국 현지투자 비중 확대, 운송장비 투자 부진 등으로 2% 대 증가에 그칠 전망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IMF	OECD
국 내 총 생 산(GDP)	2.0	0.3	1.8	1.0	1.8	1.8	2.1
민 간 소 비 지 출	1.1	0.7	1.9	1.3	1.7	-	-
설 비 투 자	1.7	4.5	0.8	2.6	2.0	-	-

주: 2024~2025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2025년은 IMF(10월), OECD(12월)

- (수출)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있겠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 내외 증가 전망
- ('25년) AI투자 확대, 관세 대비 재고 선주문 등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7,020억 달러 예상
- ('26년) 미국 관세 부과 품목은 위축 가능성성이 높겠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 및 단가 상승, 유럽 전기차 수출 확대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5% 내외 증가 전망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分	2024년	2025년			2026년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경상수지	990	1,150	1,159	-	1,300	1,037	-
수 출	6,836 (8.1)	7,036 (2.9)	7,030 (1.0)	7,020 (2.7)	7,296 (3.7)	6,915 (△1.6)	7,200 (2.5)
수 입	6,318 (△1.7)	6,287 (△0.5)	5,865 (△1.6)	-	6,431 (2.3)	5,881 (0.3)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한은 및 해외경제연구소는 통관기준, KDI는 상품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II. 주요 산업별 전망

가. 수주산업

주요국 무역정책 변화, 해운시황 하락 등으로 선박 및 해외건설 수주는 둔화되겠으나, 미국 투자협정 체결은 기회요인

- (조선) 해운시황 하락과 IMO 규제를 위한 개정 합의 유예 등으로 인한 신조선 발주 감소로 아국 수주 감소 전망

※ (해운) 미국발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 위축과 신조선 대량 인도 영향으로 시황 하락 지속 전망*

* BDI지수 : ('25) 1,680(4.3%↓) → ('26) 1,550(7.7%↓) → ('26~'28) 1,500~1,600

- (해외건설)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발주 감소 및 '25년 원전 수주 호조 영향으로 '26년 수주는 전년 대비 감소하겠으나, 미국 투자협정 체결로 '27년 이후 수주 증가 전망
- (인프라) AI 등장으로 발전소 및 전력 설비 관련 수주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연 100억 달러 이상 수주는 가능할 전망
- (방산) 수출 분야가 지상형 무기 중심에서 공중·해상형 무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27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전망

주요 수주산업 수주 ·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25년 ^f	2026년 ^f	2027년 ^f	2028년 ^f
선 박	385 (5.1%)	330 (\triangle 14.3%)	\triangle 6.1%	22.6%
해 외 건 설 <small>주 1)</small>	500 (34.8%)	350 (\triangle 30.0%)	14.3%	0.0%
인 프 라	300 (\triangle 209%)	100 (\triangle 66.7%)	20.0%	0.0%
방 위 산 업 <small>주 2)</small>	240 (152.6%)	270 (12.5%)	9.0%	10.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주1) 해외건설 수주 전망치는 인프라 수주 전망치를 포함

주2) 선박·해외건설·인프라는 수주액, 방위산업은 수출액 기준

나. 전략산업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은 수출 증가가 지속되겠으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 중국기업의 성장 등 수출 둔화 리스크 상존
- (반도체) Big Tech의 견조한 AI 인프라 투자 등으로 수출은 증가하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 중국 반도체기업 성장 등은 위험 요인
- (배터리)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 및 현지 생산 증가 등으로 리튬 배터리 수출은 감소세 지속
-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대규모 위탁생산(CDMO) 시장 성장과 아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 (미래모빌리티) 핵심원자재 수급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가 우려되나, 미국의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투자 정책, EU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 완화 등으로 수출 호조 전망

전략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25년 ^f	2026년 ^f	2027년 ^f	2028년 ^f
반 도 체	1,690 (18.9%)	1,880 (11.3%)	4.5%	1.3%
배 터 리	40 ($\Delta 26.2\%$)	36 ($\Delta 10.0\%$)	$\Delta 16.7\%$	0.0%
바 이 오 주)	109 (13.1%)	120 (10.6%)	8.3%	7.7%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차)	260 (12.0%)	280 (7.7%)	7.1%	13.3%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주) 의약품 수출액 기준

다. 전통수출산업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성장이 제한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와 EU 정책변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일반기계) 건설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지속되겠으나, 중동 플랜트 수출 증가 등으로 소폭 성장 전망
- (석유화학) 최근 국내 업체들의 NCC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 지속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심화
- (자동차·차부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중심 재편으로 수출 호조세는 유지 될 전망이나,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상존
- (철강) 세계 경기 둔화와 미국·EU의 철강관세 인상,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
- (석유제품) 유가 하락,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부진 여파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세 심화 전망
- (디스플레이) 중국과의 경쟁은 심화되겠으나, OLED 수요처가 IT·자동차 등으로 다변화돼 수출은 증가 전환 전망

전통수출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25년 ^f	2026년 ^f	2027년 ^f	2028년 ^f
일 반 기 계	468 ($\triangle 8.6\%$)	481 (2.8%)	4.0%	2.6%
석 유 화 학	420 ($\triangle 12.4\%$)	360 ($\triangle 14.4\%$)	5.6%	5.3%
자 동 차 · 차 부 품	960 (2.9%)	1,020 (6.3%)	2.3%	3.3%
철 강	300 ($\triangle 9.9\%$)	290 ($\triangle 3.3\%$)	$\triangle 1.7\%$	5.2%
석 유 제 품	445 ($\triangle 11.5\%$)	350 ($\triangle 21.4\%$)	5.7%	5.4%
디 스 플 레 이	170 ($\triangle 9.3\%$)	177 (4.3%)	5.5%	2.5%
통 신 기 기 주)	168 (0.5%)	170 (1.1%)	2.4%	0.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주) 통신기기는 휴대폰 및 통신장비 수출액 합계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2026년 세계경제는 완화된 금융여건 속에 완만한 회복세 지속으로 전년과 비슷한 3% 초반대 성장 전망

- 2025년에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유럽의 재정확대,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어 전년 대비 3.2% 성장
- 2026년에는 완화된 금융여건과 물가 안정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고금리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투자와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완만한 성장에 머물면서 전년 대비 3% 초반대 성장 전망
- 세계 교역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안보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회복 폭이 제한되고, 주요국간 기술·무역갈등이 교역 회복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와 금융시장 안정, 자금 조달비용 완화 등으로 금융여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겠으나, 노동시장 둔화, 교역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

단위: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IMF	IMF	OECD	한국은행	IMF
전세계	3.2	3.1	2.9	2.9	3.2
선진국	1.6	1.6	2.9	-	1.7
미국	2.0	2.1	1.7	2.1	2.1
유로	1.2	1.1	1.2	1.1	1.4
일본	1.1	0.6	0.9	0.5	0.6
한국	0.9	1.8	2.1	1.8	2.2
신흥국	4.2	4.0	-	-	4.2
중국	4.8	4.2	4.4	4.4	4.2
인도	6.6	6.2	6.2	-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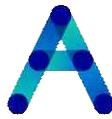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주: IMF(10월), OECD(12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 **(미국)**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재고 비축을 위한 투자 등에 힘입어 2025년 2.0% 성장을 기록한 미국은 2026년에도 금리인하, 견조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 2.1% 성장 전망
- **(유로존)** 유로존은 물가안정과 재정확대의 영향으로 2025년 1.2% 성장했으나, 2026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다소 완만하고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면서 1.1% 성장에 그칠 전망
- **(신흥국)**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국가의 견조한 성장과 정책 대응력 강화에 힘입어 2025년 4.2% 성장했으나, 2026년에는 금리인하 국면에서 자본 유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4.0% 성장에 머물 전망
- **(중국)** 중국은 2025년 경기부양책과 내수진작 노력에 힘입어 4.8% 성장했으나, 2026년에는 부양정책의 점진적 축소와 부동산 부문 조정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4.2~4.4% 성장에 그칠 전망

- **위험 요인 :**

- ①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 주요국의 금리 경로, 재정지출 방향, 통상정책 등이 잇달아 수정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투자결정과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 ② **보호무역 조치 확산** :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등으로 세계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면서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위험
- ③ **노동 공급 충격** :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 제한정책 강화, 인구 고령화, 숙련 인력 부족 현상 등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중기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
- ④ **재정·금융 취약성 확대** :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로 인한 차입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의 부채 상환 리스크가 상승하고 금융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
- ⑤ **기술주 급락 및 AI 투자 버블 조정** :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과열된 상태에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경우 기술주 중심의 자산가치 급락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 ⑥ **지정학적 긴장 및 원자재 가격 급등** : 중동과 유럽 지역 분쟁의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식량·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물가안정과 성장회복이 저해될 가능성



(2) 세계교역

□ 2026년 세계 교역량(상품 · 서비스) 증가율 2.3% 내외 전망

- 2025년 세계 교역량은 미국 관세 부과 전 조기선적 효과와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상향된 3.6% 증가
- 특히 1분기 미국 상품 수입이 전년 대비 11% 급증하며 단기적으로 세계 교역을 증가시켰으나, 이후 재고 누적과 수입 둔화로 이어져 하반기에는 효과 감소
- 2026년 세계 교역량은 미국의 관세부과 효과 본격화로 인한 수입 둔화 가능성, 공급망 분절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에 그칠 전망
- 미국의 관세 정책, 주요국의 산업안보 중심 무역정책 및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교역 비용이 상승하면서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것으로 예상

세계 교역신장률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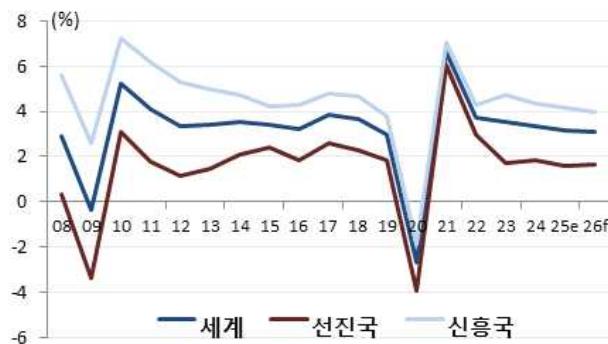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IMF	IMF	WTO	IMF	WTO	IMF	
교역신장률	3.5	3.6	2.4	2.3	0.5	3.1	
수입	선진국	2.1	3.1	-	1.3	-	2.2
	개도국	5.6	4.3	-	4.0	-	4.7
수출	선진국	1.8	2.1	-	1.7	-	2.3
	개도국	6.5	5.9	-	3.3	-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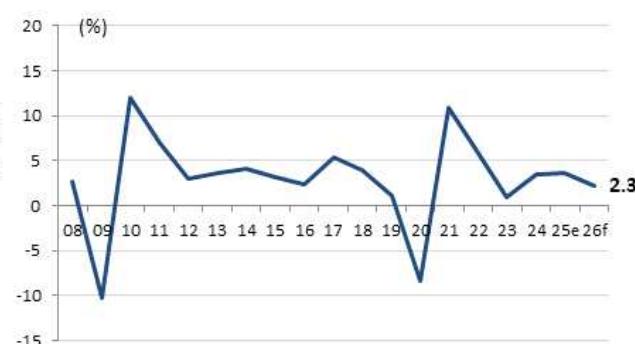
주: IMF는 상품·서비스 물량 기준, WTO는 상품 물량 기준

자료: IMF(10월), WTO(10월) 전망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신장률



자료: IMF(10월)



(3) 금융시장

□ 금리

- 2025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졌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미연준의 금리인하는 예상보다 지연되는 양상을 보임
 - 미 연준은 연초부터 금리인하 압력을 받았으나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및 고물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인하를 미루다가 2025년 9월, 10월, 12월 3회에 걸쳐 0.75%p를 인하해 연말 3.50~3.75% 수준에 이른.
 - 2026년에는 미국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했다는 공감대 속에 미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 양호한 경기 성장세 등의 영향으로 연중 1~2회 인하 뒤 금리 인하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
 - 물가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현재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경우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으며, 고용이 반등되거나 물가가 재상승할 경우 동결 가능성도 높은 상황
- ※ 미 연준위원회 기준금리 전망치(중앙값) : ('26년말) 3.25~3.50%, ('27년말) 3.00~3.25%
-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였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2026년 중 4.07~4.10% 수준에 머물 전망
 - 국내 정책금리는 경기둔화 지속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압력을 받고 있으나, 고환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금리인하 부담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을 전망
 -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금리 조정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2026년 추가 금리 인하 횟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국고채 수익률(3년물)도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

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5년	2026년 1/4	2026년 2/4	2026년 3/4	2026년 4/4	비 고
미 국	4.06	4.09	4.08	4.07	4.10	T/B(10년물)
한 국	2.80	2.70	2.60	2.55	2.54	국고채권(3년물)

자료: Bloomberg 가중평균 ('25.12.23일자 기준, 2025년은 4분기말 전망치)

□ 환율

- 2025년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미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미달러화 신뢰 약화 등으로 연말까지 약 9%(미달러인덱스 기준) 하락
- 미달러인덱스는 연초 108 수준이었으나 12월 98 수준까지 하락하며 연중 지속적으로 약세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대외경제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 미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미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신뢰는 약화
- 2026년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의 점진적 금리인하 전망과 미 정부의 재정 약화 우려 등으로 약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락폭은 2025년 대비 크지 않아 미달러인덱스는 연말 96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2025년 상반기 정치적 불안정 해결에 따른 원화 강세로 1,470원/달러 수준에서 1,370원/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미국과의 관세협상 및 기업들의 투자용 달러 비축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로 전환돼 연말 1,483원/달러까지 상승
- 2026년 중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등으로 전년보다는 약세 흐름을 완화해 연말 1,400원/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다만,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 위축과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에 따른 단가·운송비 상승, 현지 투자 의무 이행 등이 대외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원화가치 상승 폭은 제약

달러지수 및 원/달러 환율 전망

구 분	2025년	2026년 1/4	2026년 2/4	2026년 3/4	2026년 4/4
달러지수(DXY)	100.7	97.8	97.0	96.4	96.1
원/달러	1,421	1,430	1,415	1,410	1,400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중간값(25.12.23일자 기준, 2025년은 기준일까지 연평균)

□ 유가

- 2025년 유가(두바이유)는 OPEC+의 자발적 감산완화 등으로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14% 하락한 배럴당 71.96달러(평균가) 기록, 하반기에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어, 연평균 유가는 전년대비 약 13% 하락한 69달러 수준
- 2025년 상반기 유가는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장에 따라 미국, 중국 중심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OPEC+의 자발적 감산 완화*로 '24년 상반기 대비 14% 하락

* OPEC+는 2025년 4월 이후 자발적 감산 물량(220만 b/d)에 대한 감산 완화 시행
- 2025년 3분기 유가는 9월초 러시아,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배럴당 70달러 초반대로 상승했으나, 러시아와 OPEC 생산국 등의 원활한 원유수출로 70달러선이 재붕괴되며, 배럴당 70.11달러(평균가) 기록
- 2025년 4분기 유가는 10월 미중무역 갈등 재점화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 IEA의 공급과잉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전쟁 종전 재추진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여, 배럴당 63달러 수준
- 2026년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및 글로벌 석유 공급과잉에 따라 석유가 초과 공급되면서 전년 대비 약 20% 하락한 배럴당 55달러 수준(평균가)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OPEC+ 생산국과 비OPEC 생산국 모두 생산량을 늘리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 석유시장이 최대 400만 b/d 규모의 공급과잉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에 이어 러우 전쟁이 종식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라 세계 석유공급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존재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준 유종	2024	2025					2026				
		평균	1/4	2/4	3/4	4/4 ^f	평균 ^f	1/4 ^f	2/4 ^f	3/4 ^f	4/4 ^f
WTI	76.60	71.85	64.63	65.78	59.31	65.32	50.93	50.68	52.00	52.00	51.42
Brent	80.56	75.83	68.01	69.00	63.10	68.91	54.93	54.02	55.32	56.00	55.08

자료: EIA(STEO, 2025.11월)



나. 국내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26년 국내경제는 1% 후반대 성장 전망

- 2025년 국내 경제는 하반기 이후 추경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지지되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상반기 소비 위축 및 건설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1% 성장에 그침.
- 2026년에는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겠으나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 후반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민간소비)** 2025년에는 1분기 감소했던 민간소비가 2분기 이후 대면서비스 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에 힘입어 꾸준히 회복돼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26년에도 금융여건 완화 등으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 1.7%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 2025년에는 반도체장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했으나 하반기 이후 투자가 조정되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기업들의 미국 현지투자 비중 확대, 운송장비 투자 부진 등으로 2.0% 성장에 그칠 전망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IMF	OECD
국 내 총 생 산(GDP)	2.0	0.3	1.8	1.0	1.8	1.8	2.1
민 간 소 비 지 출	1.1	0.7	1.9	1.3	1.7	-	-
설 비 투 자	1.7	4.5	0.8	2.6	2.0	-	-
실 업 률	2.8	3.1	2.5	2.8	2.8	-	-
소 비 자 물 가	2.3	2.1	2.1	2.1	2.1	-	1.8

주: 2024~2025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2026년은 IMF(10월), OECD(12월)

□ 고용과 물가

- **(고용)** 2025년은 건설투자 위축, 미 관세 영향 등으로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됐으나 정부 일자리 확대 등으로 취업자수 17만명 증가, 실업률 2.8% 기록, 2026년에는 내수 회복은 이어지겠으나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13만 명에 그칠 전망
- **(물가)** 2025년 소비자물가는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상승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1% 상승, 2026년에도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아 2.1% 상승 전망

(2) 수출입

□ 2026년 수출은 전년 대비 2.5% 내외 증가 전망

- 2025년 수출은 AI투자 확대, 관세 대비 재고 선주문 등으로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2.7% 증가한 7,020억 달러 내외 기록
- 2026년에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있겠으나, 우리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단가 상승, 유럽 전기차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5% 내외 증가할 전망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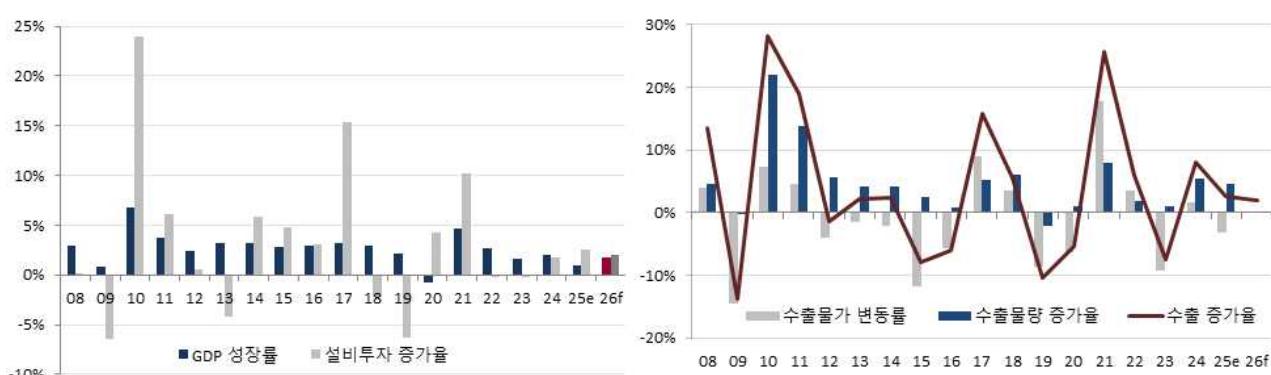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경상수지	990	1,150	1,159	-	1,300	1,037	-
수 출	6,836 (8.1)	7,036 (2.9)	7,030 (1.0)	7,020 (2.7)	7,296 (3.7)	6,915 (△1.6)	7,200 (2.5)
수 입	6,318 (△1.7)	6,287 (△0.5)	5,865 (△1.6)	-	6,431 (2.3)	5,881 (0.3)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한국은행·해외경제연구소는 통관기준, KDI는 상품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II. 주요 산업별 전망

가. 수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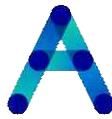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1) 조선

□ (글로벌 트렌드) 2025년 신조선 시장 발주량은 해운시황 악화 등으로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전 선종의 발주량이 급감했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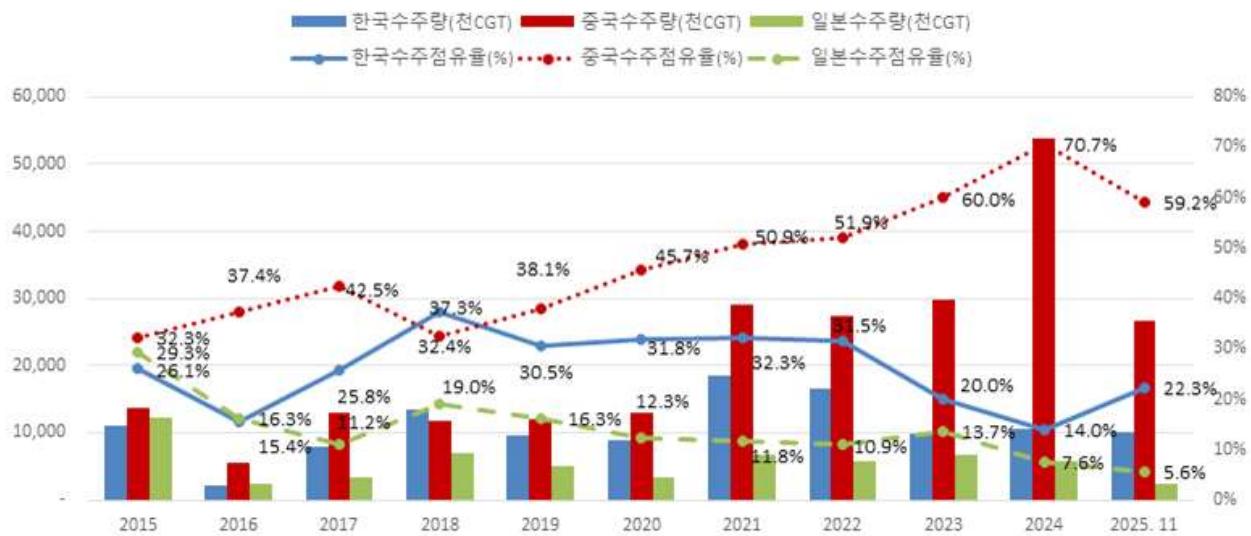
- 환경규제 대응 연료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해운시황이 악화되면서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연간 건조량을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은 유지함
- 11월까지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37.1% 감소한 4,499만CGT를 기록, 2025년 세계 발주량은 전년 대비 약 37% 감소한 48백만CGT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
- 11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184.33으로 연중(전년말 대비) 2.5% 하락하였으며 '25년 들어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완만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6년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에 의한 교역 위축으로 해운시황의 추가 악화가 예상되고, IMO의 중기조치 시행까지 지연되면서 선주들의 관망세가 유지 또는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발주량은 다소 부진한 수준인 38백만CGT까지 감소 전망
- IMO의 중기조치 시행 지연 영향 등으로 발주량 감소추세는 '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발주량 위축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건조활동(연간 42백만CGT 내외)은 이어질 것이나, 발주량 감소 영향으로 '26년 중 5% 이내의 신조선 가격 하락 전망

□ (경쟁력) 2023년 이후 대중국 경쟁력 하락으로 아국의 수주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2025년 점유율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영향으로 소폭 상승

- 높은 신조선 가격으로 선주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저가 공세를 유지하는 중국의 매력도가 높아진 데다, 국내 조선사들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품질 저하 등으로 대중국 경쟁력이 빠르게 저하됨
- 과거 한국이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대형 컨테이너선과 대형 탱커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친환경연료추진선 시장마저 중국에 빠르게 잠식당하는 상황임
- 2025년 들어 중국산 선박 입항시 고액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하는 미국 USTR의 대중국 제재로 선주들이 일정 수준 물량을 한국에 발주하면서 11월까지 수주점유율이 전년도 14%에서 22%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LNG선과 LPG선 등 가스선 시장에서의 우위만 유지되고 있는데 2025년 이후 이들 선종의 발주량 부진과 회복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점유율 하락도 우려됨



한중일 3국의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 Clarkson

□ (수주 및 수출) 2025년 LNG선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11월 이후 대량 수주로 연중 부진을 만회하고 있으나, '26~'27년 수주는 다소 부진할 전망

- 2025년 국내 조선사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영향으로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였으나, 주력인 LNG선의 부진한 수요로 인해 1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한 1,003만CGT를 수주하여 2025년 말까지 1,100만CGT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11월까지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한 359.7억 달러였으며 '25년 중 38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11월까지 수출은 외국인 생산인력의 대거 고용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고 고가의 LNG선 등의 인도가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28.6% 증가한 29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5년 총 수출액은 320억 달러 내외 예상
- 2026년에는 LNG선과 대형 탱커의 소폭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해운시황 악화로 인한 컨테이너선의 수주 감소 등으로 수주량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950만 CGT, 수주액은 14.3% 감소한 330억 달러 수준 전망
- 선박수출(해양 및 부분품 포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한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므로 최소한 202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335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조선업의 중요한 이슈와 리스크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며, 2026년에 최초 운항할 암모니아연료추진선도 주목 필요

- 2025년 들어 미국 정부의 요구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기회와 위험요인을 모두 내포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기존 해외 조선소에 개방되지 않았던 미국의 내항 화물선 및 함정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최대 약 20% 정도의 산업 규모 확대가 기대됨
- 그러나 미국의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로 미국 내에서 숙련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비자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인력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위험성이 있음
- 또한, 함정건조에 있어서 비미국시민의 접근 금지 등 비우호적인 규제가 많으나, 이에 대한 완화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음
- 미국 내 조선산업 인프라가 모두 무너진 상황이므로 미국 내 건조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 사업성 자체에도 위험요인이 있음
- 2026년 처음으로 인도되어 운영에 들어갈 암모니아연료추진선의 운항 실적과 문제점 등을 예의주시하고 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 필요
- 선박에 디젤엔진을 도입한 이후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탄소를 함유하지 않은 연료인 암모니아 연료로 추진하는 상선이 해운시장으로 인도될 예정임
- 독성과 병커링 문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으나 해운시장에서 이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환경규제 층족을 위한 선박 발주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음
- 우리 조선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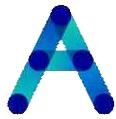
조선산업 수주,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CGT, 억 달러,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주량	9.9 (△40.3)	10.7 (7.4)	10.0 (△4.9)	11.0 (3.0)	9.5 (△13.6)	9.0 (△5.3)	11.0 (22.2)
수주액	296 (△34.8)	366 (23.8)	360 (0.1)	385 (5.1)	330 (△14.3)	310 (△6.1)	380 (22.6)
수출액	218 (19.9)	256 (17.6)	290 (28.6)	320 (24.8)	335 (4.7)	345 (3.0)	335 (△2.9)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Clarkson,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해운

□ (글로벌 트렌드)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인한 교역 위축과 신조선 인도량 증가로 해운시황은 대체로 하향하는 추세

- 2025년초 출범과 함께 고강도 관세정책을 시행한 미국의 영향으로 교역이 위축되어 해운 수요가 부진하고, 2021년 이후 대량 발주되기 시작한 신조선의 본격적인 인도로 컨테이너선 시황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해운시황 하락 추세를 보임
- 벌크선 시황은 2025년 중 세계 경기둔화, 중국 건설경기 부진,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수요 감소 등으로 상반기 중 다소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중국 철광석 수요 재고 확보, 미중 간 곡물 교역 재개 등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
 - 11월까지 평균 BDI는 1,630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낮은 수준
- 컨테이너선 시황은 '23년 이후 많은 신조선 인도가 지속되고 있어 원양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빠르게 하락
 - 11월까지 평균 CCFI는 1,202로 전년동기 대비 22.9% 낮은 수준
- 탱커 시황은 세계적인 석유수요 부진으로 용선료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러-우 전쟁 영향에 의한 장거리 교역 노선 유지, OPEC+의 감산완화로 인한 중동 산 교역량 증가 등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 11월까지 31만dwt급 VLCC 1년 정기용선료는 평균 1일당 43,83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3% 낮은 수준
- 벌크선 시장은 2026년 세계 철강수요 부진, 석탄수요 감소 지속 등 수요측의 부정적 요인에 더해 신조선 인도량 증가로 시황하락이 예상되고, 이후 선복량과 인도량 감소 및 노후선 폐선으로 '28년부터 재상승 전망
- 컨테이너선 시황은 2023년 이후 많은 신조 선복 인도가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양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홍해 사태가 해소된다면 운임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탱커 운임과 용선료는 2026년에도 양호한 수준은 유지될 전망이나, 신조선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27년 또는 '28년경부터 노후선 해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전반적인 석유수요 부진으로 완만한 하락 예상



□ (경쟁력) 국내 해운업계는 증견 이하급 중소형 선사의 비중이 높아 혁신에 취약하며 해상환경 규제 대응에 취약함

- 보유선복 기준으로 HMM은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2.9%의 점유율로 8위, 장금상선은 탱커시장에서 1,291만dwt 선복 운영으로 8위, 팬오션은 벌크선 시장에서 1,233만dwt로 9위에 올라있는 등 일부 대형선사가 존재함
- 그러나 그 외에는 대형해운사보다 중소형이 주류를 이루어 혁신에 취약한 약점이 있음
- 세계적인 해상탄소중립 기조에서도 국내 선사의 선박교체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금융권의 금융 제공이 부족한 실정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이슈 및 리스크) 국제적인 분쟁 해소와 일부 시장의 선복량 과잉이 향후 시황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탱커시황을 좌우했던 러-우전쟁의 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파생된 홍해사태는 분쟁의 휴전 가능성에 높아짐에 따라 해소 가능성이 있음
- 그러한 경우 컨테이너선 시황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탱커, LNG, LPG, 자동차전용선 시장 등에도 시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1년 이후 신조선 수요 호조로 발주된 선복량이 해운시황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폐선이 언제 본격화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
- 신조선 인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은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이며 자동차 운반선, 제품운반선 등도 시황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음

해운 평균 운임지수 현황 및 전망

단위: 용선료는 \$/day, 지수,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BDI	1,378 (△28.7)	1,754 (27.3)	1,630 (△9.6)	1,680 (△4.2)	1,550 (△7.7)	1,500 (△3.2)	1,600 (6.7)
CCFI	938 (△66.4)	1552 (65.6)	1,202 (△22.9)	1,190 (△23.3)	1,000 (△16.0)	920 (△8.0)	870 (△5.4)
탱커용선료	41,303 (61.1)	45,635 (10.5)	43,830 (△5.3)	45,000 (△1.4)	42,500 (△5.6)	39,000 (△8.2)	37,500 (△3.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탱커 용선료는 310K급 VLCC 기준

자료: Baltic 해운거래소, Clarkson, 상해항운교역소,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해외건설

(글로벌 트렌드) 2026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16.2조 달러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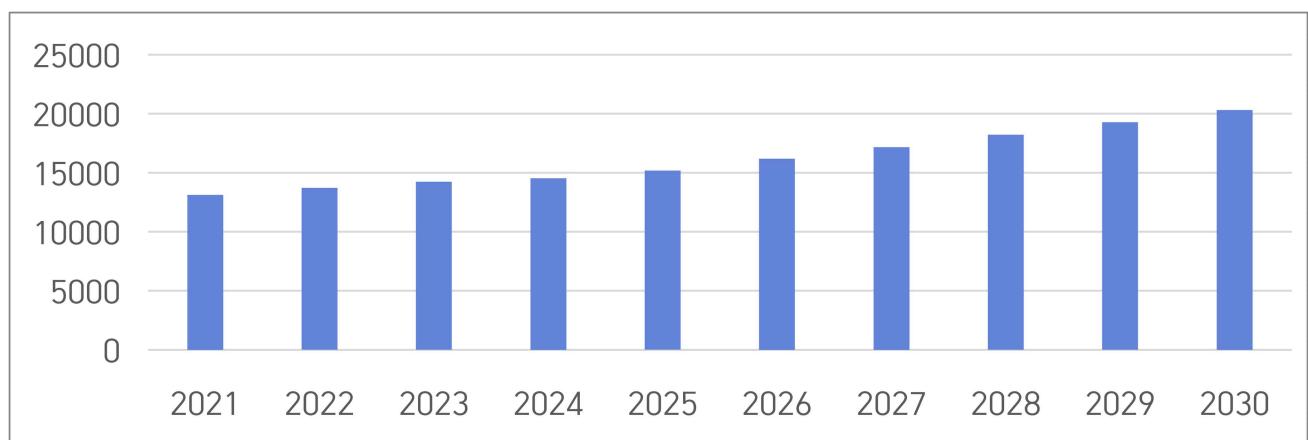
-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 등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2026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치는 16.9조 달러에서 16.2조 달러로 하향 조정됨.
- 2021년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은 세계 건설산업에 부담으로 작용
- 2030년 세계 건설 시장규모는 20.3조 달러에 달해 2026년 대비 25.3% 증가할 전망

(경쟁력) 2024년 글로벌 Top 250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매출액은 1,273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스페인 665억 달러, 미국 327억 달러, 한국 317억 달러, 일본 240억 달러 순

- 2024년 글로벌 건설사 매출기준으로 중국 점유율은 25.4%로 중동 및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점유율은 6.3%로 4위권 기록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수주액) 2025년 수주액은 50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6년 350억 달러 전망

- 2025년 11월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체코 원전 수주로 446억 달러에 달해 2025년 수주액은 5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
- 2025년 11월까지 중동 수주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9.9% 감소했으나, 아시아, 북미 및 유럽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0.5%, 30.1% 및 294% 증가
-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353.5억 달러, 건축 54.0억 달러, 토목 13.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5.5%, 20.0%, △1.4% 증가
- 2026년 수주액은 보호무역 확대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350억 달러 전망
- 2025년 유럽 및 북미지역 수주는 배터리 공장 등 우리 기업들의 생산설비 건설에 기인했으나, 생산설비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추가 발주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유가 약세로 중동 발주가 감소할 가능성도 높아 2026년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2025년 대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슈 및 리스크)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리스크 및 유가 약세 등 해외 수주에 부정적 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관세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동 발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가도 발주 확대에 불리한 상황
- 원화 약세 및 금리 상황은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유가 하락 등 부정적 변수의 영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수출액	333 (1.3)	371 (11.4)	446 (36.4)	500 (34.8)	350 (△30.0)	400 (14.3)	400 (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인프라

□ (글로벌 트렌드) 2026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5.7조 달러, 2030년 7.3조 달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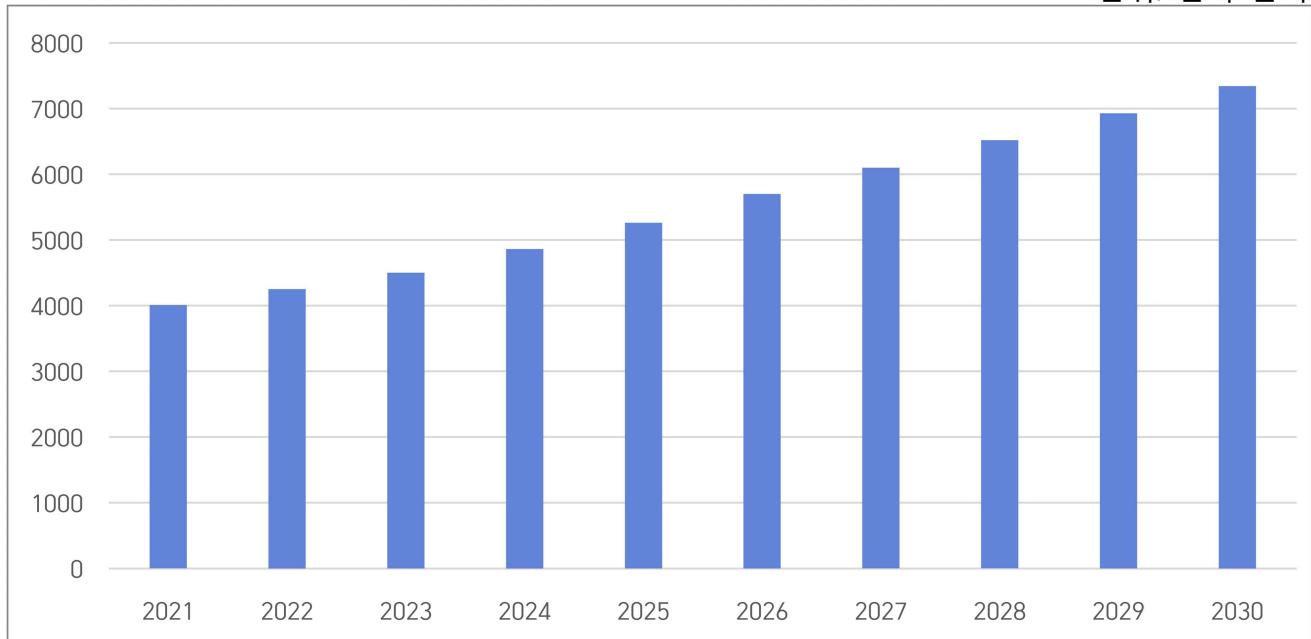
- 2025년 기준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시장 비중은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건설시장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
- 인프라 시장은 2022년 이후 연평균 7.4% 성장해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기존의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경쟁력) 2024년 인프라 분야 글로벌 Top 10 기업 중 한국 기업은 수처리 분야에서 GS건설(GS Inima)이 7위, 발전분야에서 삼성물산이 8위를 기록

-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개발 및 금융조달 역량이 중요한 인프라 분야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세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수주액) 2026년 수주 전망치는 100억 달러이며, 증장기적으로 120억 달러 전망

- 2025년 11월까지 인프라 수주액은 대형 발전 프로젝트 수주로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한 270.2억 달러
- 체코 원전 수주로 발전 분야 수주액은 24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큰 폭의 수주 증가를 기록
- 2026년 수주액은 대형 프로젝트 발주 감소로 전년 대비 66.7% 감소한 100억 달러 예상
- 2026년에는 체코 원전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프라 수주액은 2024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글로벌 발전시장은 재생에너지로 재편되었으나, 전기 자동차 및 AI 등장으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 이슈가 증가하며, 원전 및 SMR 등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발주 증가가 예상

- 2024년 기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약 600GW로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93%를 차지,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전기 공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낮은 건설 난이도 및 중국산 기자재 범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운 분야
- 미국을 중심으로 원전 및 SMR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원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 가능

인프라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수출액	74.4 (△31.1)	97.2 (30.6)	270.2 (186)	300 (209)	100 (△66.7)	120 (20)	120 (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인프라 수주액은 도로·교통·항만·공항 등 토목분야와 발전, 담수, 전기시설로 구성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방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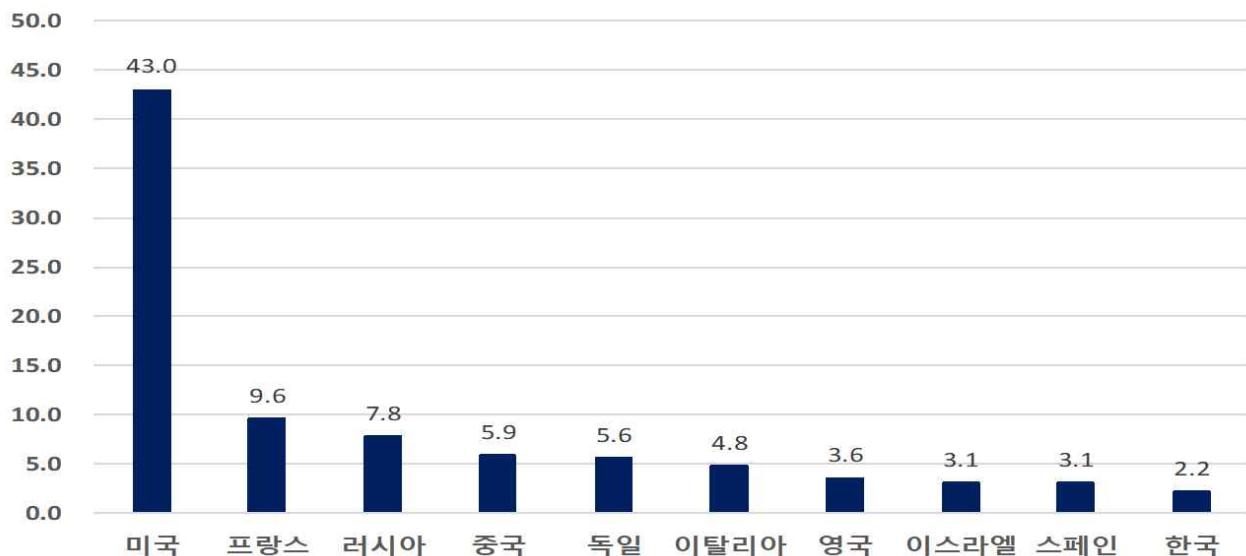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2025년 글로벌 방위비 지출 규모는 2.9조 달러로 예상, 2024년 대비 9.4% 상승,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모두 지속적인 증가 전망

- 최근 10년간 방산 시장은 미국의 과점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후발국의 진입이 제한된 상황
- 최근 5년 기준 지역별 주요 무기 수입은 아시아·오세아니아(37%), 중동(30%), 유럽(21%)으로 집중
- 2025년 세계 무기 수출은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기존 방산 선진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기술력과 생산능력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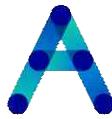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 (경쟁력) 2025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전 세계 무기 거래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방산 설계 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약 80%로 평가

- 2020~2024년 글로벌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10위권)
- '20~'24년 5대 무기 수출국: 미국(43%),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독일(5.6%)
- 한국은 지상무기 수출 중심에서 다목적 군용기(MOR), 해양 방산, MRO 등으로 방산 수출 제품의 다변화 전략으로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최근 5년간 상위국가별 무기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 (수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2025년 기준 240억 달러, 2026년에는 연간 270억 달러 이상 달성 전망

-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K-2 전차 2차 수출계약, 이라크 천궁 수출계약, 페루 장갑차 수출계약 성과 등에 힘입어 240억 달러를 달성
- 무기 수출은 전투기, 장갑차, 해양 방산 시스템 등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
- 2025년 한국의 지상무기 수출은 폴란드가 46%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필리핀(14%), 인도(7%) 등의 순
- 2026년 방산 수출액은 2025년 기체결된 에스토니아 천무 수출 및 페루 지상 무기 계약, 2026년 계획된 미국 해군 훈련기 계약 협상 진행, 루마니아 K-2 전차 계약 건 등으로 27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전망
- 이밖에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루마니아 K-2 전차 계약 등도 2026년 중 수출로 실현될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글로벌 군비 증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등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국세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글로벌 방산 수출의 증가
- 유럽의 무기 수입은 최근 5년 대비 94% 증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입량은 전쟁 이전 대비 6,633% 폭증
- 주요 방산 시장에서는 MRO 등 전체 생애 주기를 포함하는 '포괄적 패키지' 서비스를 요구, 방산 수출 관련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MRO 자격을 획득하고, 수출국과의 계약 시 패키지형 MRO·기술이전 제공이 필요한 시점

최근 방산 수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방산 수출액	30 (△2.6)	73 (143)	173 (137)	140 (△19.1)	95 (△32.1)	240 (152.6)	270 (12.5)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5년, 2026년 수치는 해외경제연구소

나. 전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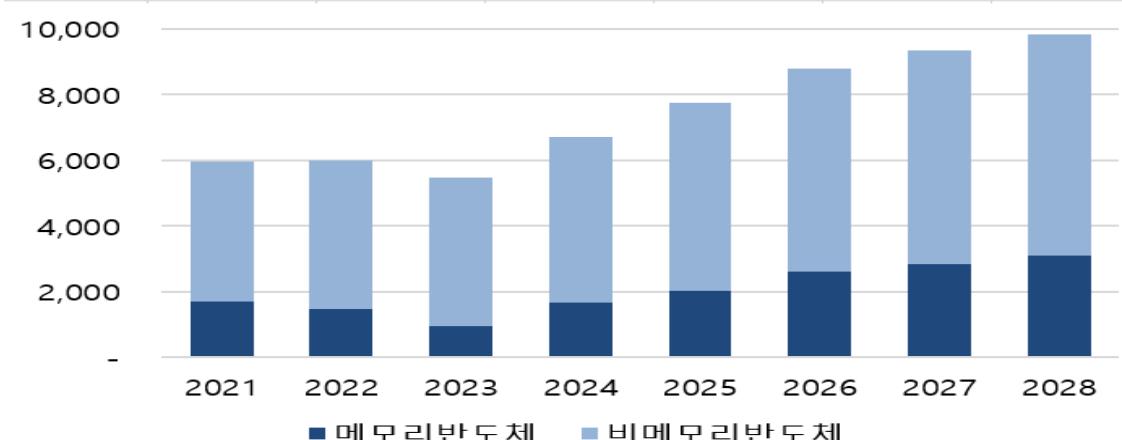
(1) 반도체

□ (글로벌 트렌드) 세계 반도체산업은 AI 인프라 투자, 온디바이스 AI의 확산 등으로 2024년 약 6,720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달러로 연평균 10.5% 성장 전망

-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2024년 1,678억 달러에서 2028년 3,090억 달러로 연평균 16.5% 성장 전망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은 2024년 5,039억 달러에서 2028년 6,738억 달러로 연평균 7.5% 성장 전망
- 2026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3.6%,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30%,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8% 성장 전망
-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DRAM 생산능력 제약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주요 기관은 메모리반도체 성장을 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반도체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 옴디아

□ (경쟁력)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이나,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시스템반도체는 AP(Application Processor), DDI(디스플레이구동칩), 이미지센서 등 일부 품목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은 2% 수준
-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첨단공정 수율 안정화, 고객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세계 1위 TSMC를 추격중이나 TSMC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파운드리 시장점유율('25.2분기)은 TSMC 70.2%, 삼성전자 7.3%, SMIC(중) 5.1% 순¹⁾

□ (수출) 2026년 반도체 수출은 Big Tech의 AI 서버 투자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880억 달러 내외로 전망

- 2025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1,690억 달러 내외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전망
- 1~11월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0.5% 증가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가 견인함.
- 2026년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AI 서버 수요, 메모리반도체 가격상승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갱신할 전망
- AI 투자 주체가 클라우드에서 소버린 AI, Neo Cloud*로 다변화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음
 - * GPU 중심의 AI에 특화된 클라우드
- AI의 성장으로 메모리반도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슈 및 리스크) 반도체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대중국 제재, 중국 반도체기업의 성장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기업의 미국내 반도체 생산물량과 수입 제품이 탑재한 반도체 칩의 가치/탑재량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
- 미국은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율 관세부과(100%) 등을 언급했으며, 미국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우리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 강화에 대응해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장려하며, 반도체 기술력도 향상되어 자국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986	1,419	1,527	1,690	1,880	1,964	1,990
	(△23.7)	(43.9)	(19.7)	(18.9)	(11.3)	(4.5)	(1.3)

주: 1) MTI 831 기준

2)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혁신성장금융1부

1) 트렌드포스

(2) 배터리

□ (글로벌 트렌드) 2026년 글로벌 리튬 배터리 수요는 1,917GWh, 2030년 3,615GWh로 증가할 전망

- 2025년 주요국 리튬 배터리 수요(GWh)는 중국 777, 유럽 310, 미국 244로 중국이 전체 수요의 51.3%를 차지
- 2025년 주요국 수요 증가율은 중국 25.7%, 유럽 38.4%, 미국 5%로, 중국 뿐 아니라 유럽 및 미국 수요도 전년 대비 증가
- 유럽은 배기가스 규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IRA 보조금 폐지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30년 주요국 리튬 배터리 수요(GWh)는 중국 1,647, 유럽 687, 미국 661로 2025년 대비 연평균 각각 16%, 18%, 22%씩 증가할 전망

□ (경쟁력) 2025년 9월까지 전기자동차용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70%를 넘어선 반면, 우리 기업 점유율은 16.7%에 불과

-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한 중국 배터리 기업이 안정된 공급망과 규모에 더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 중
- 우리 배터리 기업은 캐즘에 맞서 에너지 효율과 안전 등 성능을 높인 제품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이 벼거운 상황

글로벌 배터리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GWh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China	364	489	618	777	981	1,172	1,342	1,496	1,647
South Korea	13	14	19	22	28	36	43	51	59
Japan	4	7	10	14	19	25	35	41	49
Europe	146	193	224	310	367	436	541	608	687
US	91	139	182	200	327	421	501	585	661
Rest of World	32	69	108	148	193	253	327	410	512
Total	650	911	1,161	1,471	1,917	2,343	2,788	3,191	3,615

자료: BNEF



□ (수출) 2026년 수출액은 36억 달러로 예상, 현지 생산 증가 및 리튬 배터리 단가 하락으로 리튬배터리 수출액은 추세적으로 감소할 전망

- 2025년 수출액은 리튬 배터리 가격 하락 지속 및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2% 감소한 40억 달러로 예상
- 전기자동차용 리튬 배터리는 현지에서 주로 생산되어 수출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리튬 배터리 수출액의 대부분은 핸드폰 등 IT기기용 소형 리튬 배터리임.
- 단가가 비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대응 및 세금공제 효과 때문에 생산기지가 외국에 위치하여 매출 대비 수출 기여도는 매우 적은 상황
- 2025년 리튬 배터리 양극재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 감소한 48억 달러를 기록하겠으나, 2026년에는 60억 달러로 예상
- 2026년 수출액도 전기자동차용 리튬 배터리의 현지 생산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출이 추세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 감소한 36억 달러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리튬 배터리 공급과잉 및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2025년 기준 글로벌 리튬 배터리 공급용량은 3,790GWh이며, 공격적인 증설 경쟁으로 2030년 8,430GWh 증가, 2025년 수요 대비 2,284GWh가 과잉
- 중국은 가격 및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인 LFP 양극재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주무기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NCM 양극재를 적용해 높은 에너지밀도 및 주행거리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됨에 따라 양극재 및 음극재 등 중국산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대량 생산 및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리튬 배터리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수출액	72.7 (△0.9)	54.2 (△25.5)	38.3 (△20.9)	40 (△26.2)	36 (△10.0)	30 (△16.7)	30 (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태양광

□ (글로벌 트렌드) 2026년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707GW, 2030년에는 786GW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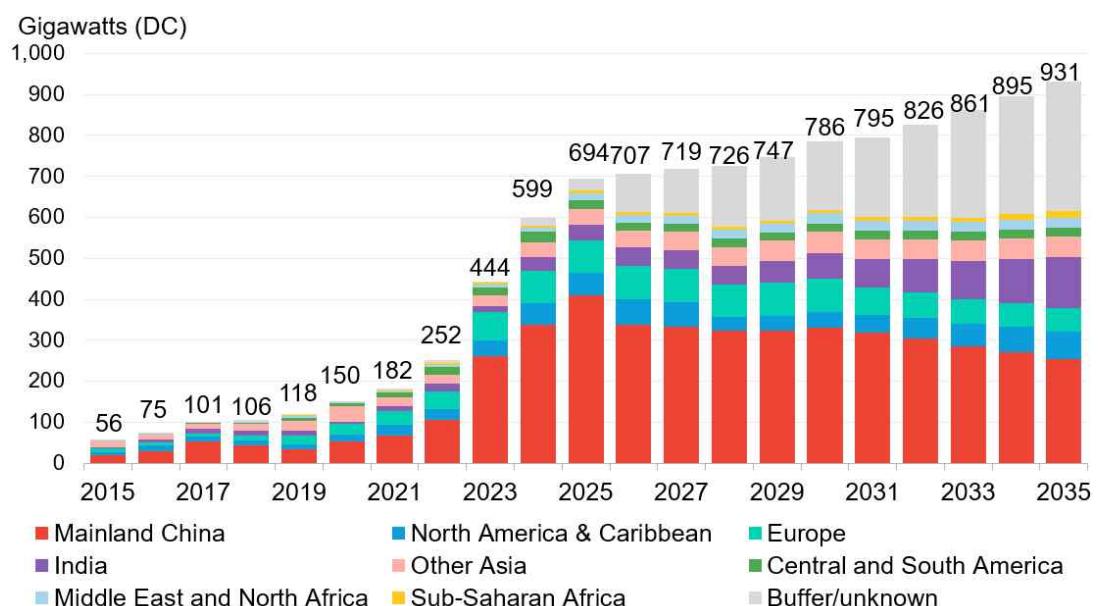
-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444GW로 예상되며, 2026년 이후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둔화될 전망
- 2021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태양광산업도 성숙기에 진입할 전망
- 태양광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저장과 결합된 분산전원 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경쟁력) 모듈 생산량 기준 2020년 세계 3위였던 한화솔루션은 30위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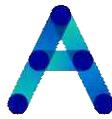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우리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불가한 상황
-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들은 90% 이상 장악하고 있어, 중국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

글로벌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GW



자료: BNEF



□ (수출) 2025년 수출액은 0.52억 달러, 2026년은 0.50억 달러에 불과할 전망

- 2025년 11월까지 태양광 수출액 0.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0% 감소한 상황
-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하락과 미국 IRA 시행에 따른 미국 현지 생산증가에 기인
- 202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5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국산 태양광 모듈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대비 30% 이상 가격 격차가 발생,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상황

□ (이슈 및 리스크) 미국 IRA 시행으로 현지 시설에서 제품 생산 필요성 증가

- 태양광산업 전 벤류체인에 걸쳐 중국기업들의 독점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대규모 세금공제 제도를 통해 태양광 벤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건설을 통한 판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
-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고, 현재 연 생산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8.4GW로 확대
- 2025년부터 한화솔루션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미국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면 세금공제 액은 2025년 6,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제품 공급 중

태양광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수출액	10 (△35.3)	1.2 (△87.6)	0.47 (△61)	0.52 (△56.7)	0.50 (△3.8)	0.40 (△20.0)	0.40 (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태양광 수출액은 태양전지 및 모듈(8541430000) 수출액 합계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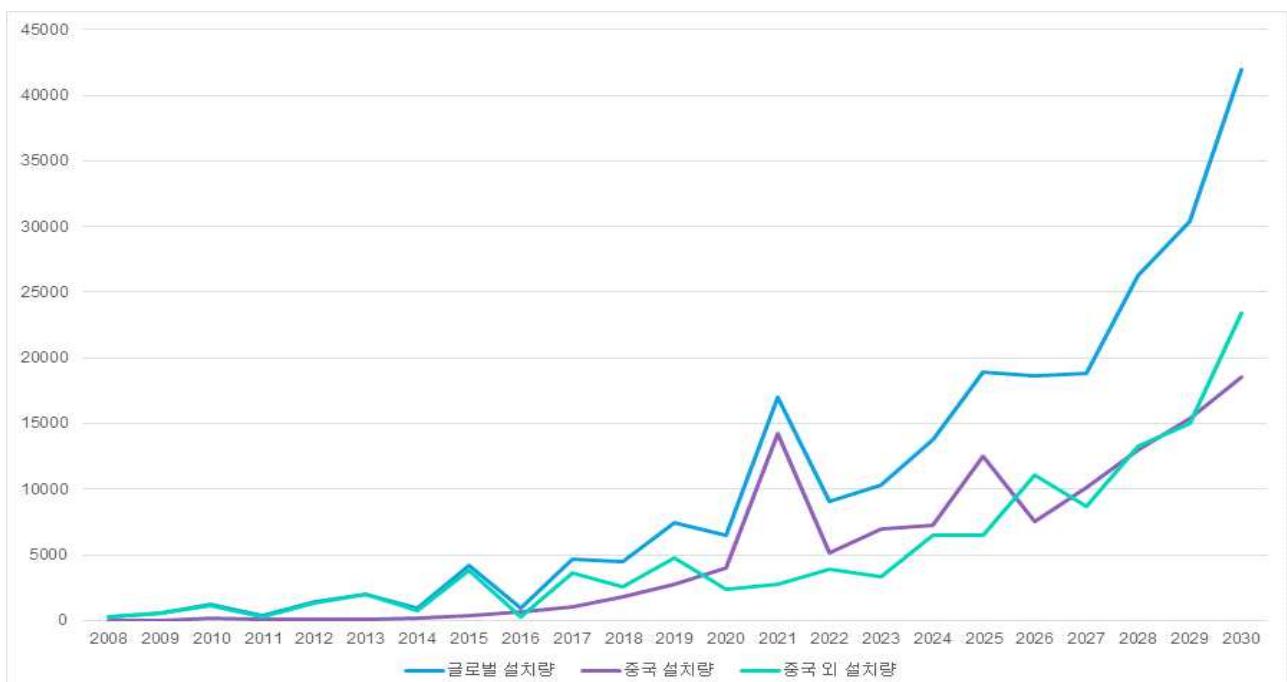
(4) 해상풍력

□ (글로벌 트렌드) 2026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전년 수준인 18.9GW, 2030년 40GW로 증가할 전망

- 2025년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량 중 중국 설치량은 12.5GW로 전체 설치량의 66%를 차지
- 유럽은 영국 및 독일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영국 설치량은 2.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30년 중국 해상풍력 설치량은 18.6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4.5GW, 미국 2.9GW, 영국 2.8GW, 네덜란드 2.0GW, 대만 1.8GW가 설치될 전망
- 차세대 해상풍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량은 2024년 0.04GW에 불과하나 2040년 19GW까지 증가할 전망
-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대비 이용률이 높으나, 높은 발전단가는 보급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빈의 대형화 및 하부구조물이 개발 중
- 1GW 풍력단지 건설 시 14MW 터빈을 사용하는 것이 10MW 터빈을 사용하는 것 대비 1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GW



자료: BNEF



□ (수출액) 2025년 수출액은 4.3억 달러, 2026년 수출액은 4억 달러 전망

- 2025년 수출액은 미국의 풍력 타워에 대한 보조금 정책 강화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한 4.3억 달러에 이를 전망
- 현재 풍력 수출은 풍력 터빈은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조 부품인 타워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
- 다만, 풍력타워 등 풍력 부품 수출 환경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2026년 수출액은 미국 철강 관세 부과로 미국향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7% 감소한 4억 달러 전망
- 풍력 수출 환경은 녹록치 않겠으나, 국내 사업 확대가 이뤄질 경우 국내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2024년 3월 기준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곳은 83개 단지로 설비용량은 27GW, '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8GW로 국내 시장 확대 가능성은 존재

□ (이슈 및 리스크) 풍력터빈 기술 수준은 해외 선진업체 대비 5년 이상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 비활성화로 자체 기술개발 및 Track record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최대 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작하는 8MW급 (DS205-8MW)이며, 유니슨은 10MW급 터빈 실증을 진행 중
- 현재 선진업체는 15MW급 터빈을 상용화를 완료했으나, 국내 터빈은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실제 필드에서 Track record 확보가 쉽지 않아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타워 등 단조품과 같은 부품 기술력 및 제조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핵심 부품 및 설계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율은 70% 내외

풍력타워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수출액	4.6 (△2.5)	3.9 (△15.1)	3.9 (7.5)	4.3 (10.3)	4.0 (△7.0)	4.0 (0)	4.0 (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풍력 수출액은 풍력 타워(8503001000) 수출액 합계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바이오

□ (글로벌 트렌드) 세계 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5%로 성장하여, 2029년 2.4조 달러에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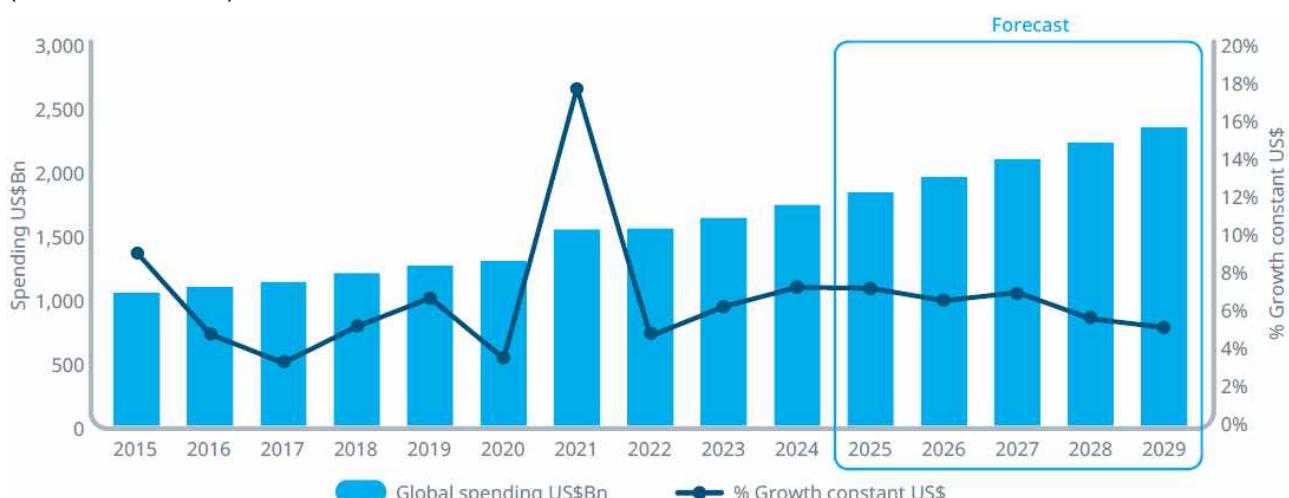
- 세계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사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약 출시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로 2024년 1조 7,370억 달러로 성장(IQVIA)
- 향후 5년간 신약 및 특허만료 영향(복제약 시장 확대)으로 연평균 약 5~8%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2029년 2조 3,7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의약품 시장 증가율은 절대적 규모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2029년까지 고성장을 주도하는 최대 동인은 기존 특허 보호 브랜드*로 시장 규모가 4,610억 달러 증가할 전망

* 2022년 이전 출시된 제품군

- 2029년 신규 브랜드 시장 규모는 2024년 대비 1,8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허 만료로 인한 신규 브랜드 시장 축소 규모는 2,200억 달러로 이전 대비 매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축소분 대부분이 바이오시밀러의 거센 추격을 받는 바이오의약품으로 관련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질 전망
- 기타 고소득 선진국(910억 달러↑)과 신흥제약국(Pharmerging, 890억 달러↑)의 성장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QVIA(2025.5월)

□ (경쟁력) 최근 국내시장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세계 의약품 시장 중 한국 시장의 비중은 약 1.4% 수준에 그침(Fitchsolutions, 2025.2.20. 기준)

- 2024년 한국 의약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31.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 시장규모 = (생산금액 + 수입금액) - 수출금액,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계산

- 2024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32조 8,629억 원(7.3%↑)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2024년 의약품 수출실적은 12조 6,749억 원(28.2%↑)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 수입실적은 11조 5,085억 원(7.5%↑)으로 무역수지가 3년 만에 흑자(1조 1,664억 원) 전환

□ (수출) 2025년 수출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13% 상승한 109억 달러, 2026년은 전년 대비 약 11% 상승한 120억 달러 전망

- 2025년 의약품 수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증가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및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15% 상승한 110억 달러 예상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백신, 독소·항독소 등 모든 바이오의약품 제제에서 고른 성장세
-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 지속 확충과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성장이 맞물려 글로벌 제약사들과 대규모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대 실적 경신
- 2026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1% 상승한 120억 달러 수준이 예상되며 바이오 CDMO 시장 확대로 2028년까지 연평균 7~8%대의 양호한 성장세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바이오시밀러 중심 구조로 미국의 의약품 관세부과 시 수익성 악화 우려

-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채산성 하락, 미국 내 시설투자 압박, 가격경쟁력 저하 등 국내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특히, 소비자에 가격 인상을 전가하기 어려운 제네릭 의약품과 가격경쟁력이 점유율 경쟁의 핵심 요소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

의약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78.7 (△25.0)	95.9 (21.9)	98.5 (11.4)	108.5 (13.1)	120.0 (10.6)	130.0 (8.3)	140.0 (7.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부,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미래모빌리티(친환경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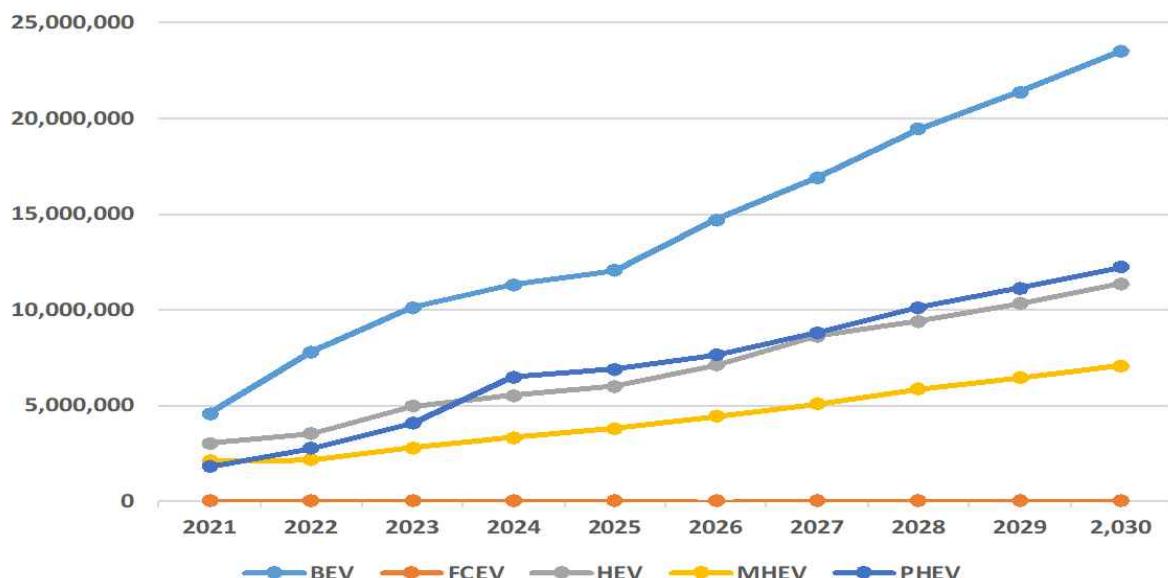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중국·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

- 중국·인도·아세안·호주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EU에서는 성장세 둔화
-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하이브리드 차량 제외)은 2021년 1,156만 대에서 2024년 2,711만 대로 연평균 3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30년까지 5,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의 관세부과와 이에 따른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일시적인 시장 위축 가능

□ (경쟁력) 2025년 국내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 친환경차 판매량의 약 4.9%를 차지하며 '23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 2025년 11월 기준,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151만대를 돌파하였으며, 2025년 전년동기 대비 10.1%의 성장률을 기록
- 전기차 배터리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친환경차의 높은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전 세계 자동차 동력원(Powertrain)*별 수출량 현황 및 추정(대수)



자료 : MarkLines, *(MHEV: Mild Hybrid Electric Vehicle; MHEV (48V): Mild Hybrid Electric Vehicle with a 48V battery system; HEV: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친환경차 혼합형 구조 제외)



**□ (수출) 2025년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60억 달러,
2026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280억 달러로 전망**

- 2025년 친환경차 수출액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및 글로벌 시장의 수요 둔화 등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260억 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
-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2024년 상반기 이후 EV 판매 비중이 높아져 '30년에는 50% 이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2026년 친환경차 수출액은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7% 증가한 280억 달러 전망
- 전기차 수출액은 단기적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수요 증가 등에 의해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 총 자동차 수출액 대비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은 중국(64%), EU-27(20%), 미국(10%), 아세안(3%), 한국(1.5%) 순

□ (이슈 및 리스크) EU의 환경 및 에너지 규제,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친환경차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현지 생산과 수출선의 다변화 전략은 성장 기회

- EU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전기 배터리 유해물질 관련 규제 의무화 진행
- EU는 전기차 소재 공급 불안정성과 유럽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규제 완화 검토 중
-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은 긍정적인 신호

친환경차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친환경차 수출액	242 (50.5)	232 (△4.1)	236 (9.7)	260 (12.0)	280 (7.7)	300 (7.1)	340 (13.3)
전기자동차 수출액	143 (75.3)	101 (△29.4)	81 (△13.8)	110 (8.9)	130 (18.2)	150 (15.4)	160 (6.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자동차는 MTI 741400 기준

자료: 무역협회 통계,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7) 항공·우주

① 인공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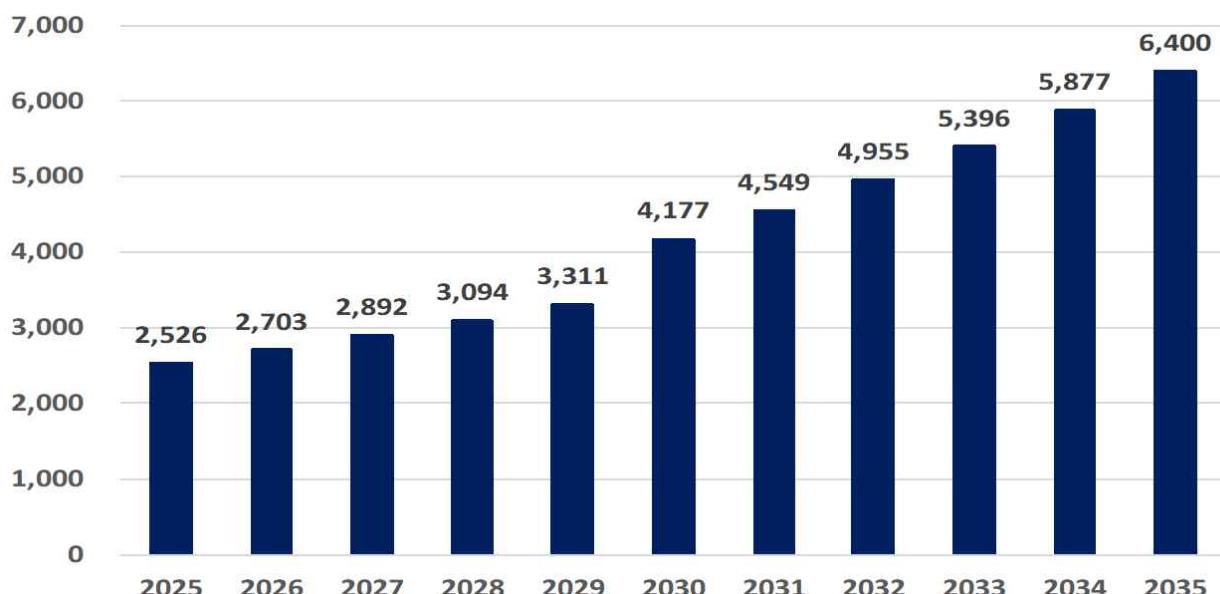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인공위성 제조 시장은 2025년 2,526억 달러(전년 대비 7.8% 성장)에서 2035년 6,4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형태로 전환 중인 위성 제조 시장은 2025년 218억 달러에서 2035년 867억 달러로 성장 전망
- 위성 시장은 발사 비용 절감, 위성의 소형화, 성능 향상,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활용도 제고 등으로 수요처가 다변화되는 추세
- 저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위성 발사와 양산이 가능해지면서, 군 정찰감시, 항법, 위치 기록, 재난 구조 등의 형태로 활용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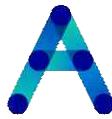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 (경쟁력) 한국은 우주항공 부품 제조 역량, 위성 데이터 활용(통신·관측 등) 분야에서 우위, 첨단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모델 구축

- 한국의 인공위성 관련 시장은 저궤도 위성 안테나와 관련된 기술 실증 및 검증 서비스 형태로 향후 5.5% 성장 전망
- 최근 우주항공 청 설립, 카자흐스탄과의 우주 협력 등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

전 세계 인공위성 제조시장 전망(억 달러)



자료 : MTF(Market Research Future)



□ (수출) 2025년 한국의 인공위성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6년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5억 달러 전망

- 2025년은 소형 위성 분야, 특히, 위성 발사 서비스의 수출액 증가
- 한국의 주요 시장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환경 모니터링 위성, 통신 위성,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수출 증가 추세
- 인공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2026년 기준 민간(31대), 정부연구기관(8대), 자체(4대)로 전망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구 관측 위성, 누리호 발사체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한화시스템은 위성 전반 부품 개발 및 상업화에 투자 주도

□ (이슈 및 리스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력, 가격경쟁력 등의 강화 필요

- 인공위성 개발·발사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발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카자흐스탄(바이코누르 발사장), 인도(스리하리코타 발사장)을 활용
- 한국의 발사체 기술에 대한 사전 검증의 문제, 시험 발사체 성공에 대한 담보 및 기술 신뢰성 문제가 상존
- 인공위성 데이터 및 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 수립 지원 필요
-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위성 프로젝트, 미국의 NASA 공동 프로젝트 참여 (아르테미스 계획)를 통한 기술 네트워크 구축

인공위성(위성장비) 수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구 분	2023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인공위성 (위성장비)	10 (0)	8 (△20.0)	9 (12.5)	10 (25)	15 (50.0)	20 (33.3)	22 (1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HSK 85176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② 드론

□ (글로벌 트렌드) 세계 전체 드론 시장은 2024년 1,386억 달러에서 2030년 4,138억 달러로 연평균 20.3%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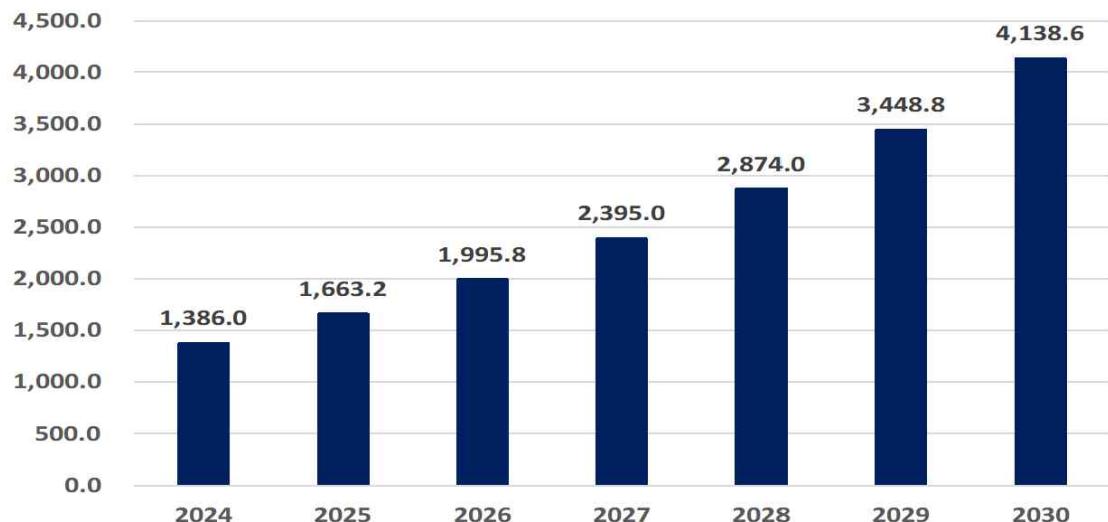
- 드론산업은 AI, 자율 비행, 고해상도 센서,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그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5G 통신과 IoT 결합기술이 환경보호, 재난,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드론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상업용 드론은 군사용 정찰기, 무인 항공기(UAV), 감시 및 공격기 등 국방분야에서의 전장 분석과 무기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 비행고도, 비행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존재하나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드론산업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전망

□ (경쟁력) 한국은 소형, 개인용, 농업용 드론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

- 드론은 DJI, Parrot, Autel Robotics, Skydio 등 주요 기업이 70% 시장 점유
 - * 한국은 개인용 드론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 및 시장 확보, 드론 완성체 5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부품 국산화 추진
- 한국의 드론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3,210만 달러로 예상되며, 반면,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5년 이후 연평균 12.5% 성장 전망

세계 드론 시장규모 전망(억 달러)

단위: 억 달러



자료 : 항공안전기술원

□ (수출) 2026년 상업용 드론 수출액은 2025년 12억 달러에서 25% 증가한 15억 달러 전망

- 2025년 한국 상업용 드론은 전년 대비 100% 성장한 상황이나 세계 시장 점유율 3%에 불과한 상황
- 한국의 농업용 드론은 단순 방제를 넘어서는 정밀 농업용 드론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중국산 드론 규제로 인해 농업용 드론 수출에서 간접적 기회
- 2026년 상업용 드론 시장은 AI 등을 활용한 자율 비행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시장을 견인
- 2026년에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찰 및 배송용 드론 수출 증가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드론의 활용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증 검증에 대한 문제 상존

- 2024년 기준 드론 비행 횟수는 전 세계적으로 1,550만 건에서 1,950만 건으로 25% 증가
- 아시아(639만 건), 북미(390만 건), 유럽(380만 건), 인도(120만 건), 중동(100만 건)
- 공공 및 행정, 안전분야에 적용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산업 전반에서 드론의 접근성 향상
- 한편, BVLOS 규칙²⁾ 제정으로 드론의 운영위험에 대한 규제, 비행 조건 및 요구 사항, 개인정보 등에 과도한 규제가 존재
- 드론의 비행 계획, 안정성 평가, 기술 검증을 포함한 절차와 드론 공역에 대한 제한 존재
- 영상 데이터, 카메라 센서 등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존재

상업용 드론 수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드론	11	6	11	12	15	17	21
수출액	(175)	(△45.5)	(83.3)	(100.0)	(25.0)	(13.3)	(23.5)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드론은 HSK 8802, 8806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규칙 :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 밖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8) 로봇

□ (글로벌 트렌드) 세계 로봇산업은 2020년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로 연평균 20% 성장할 전망

- 인구고령화, 인건비 상승, 로봇 가격하락, 고위험 업무기피 등이 로봇 도입을 촉진하며 로봇산업 성장의 축이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이동할 전망
- 로봇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도입되는 초기 단계로 산업용 로봇, 로봇청소기 외 대부분 로봇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함
- 2025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54.2만대, 2026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전년 대비 20% 성장한 57.5만대로 전망

□ (경쟁력) 미국, 유럽, 일본이 로봇산업을 선도하며 중국이 빠르게 추격중

- 전통 산업용 로봇은 화낙(일본), ABB(스위스), Yaskawa(일본), Kuka(독일), Kawasaki중공업(일본)의 과점구조이며, 협동로봇은 덴마크 Universal Robots가 최대 사업자
- 서비스 로봇은 물류로봇, 로봇청소기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 등이 주도, 로봇의 핵심 부품은 일본, 소프트웨어는 미국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
- 한국의 지능형 로봇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86.6%이며 기술격차는 1년으로 추정³⁾

로봇산업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천대



자료 : Boston Consultin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 2024

□ (수출) 2026년 로봇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억 달러 내외로 전망

- 2025년 로봇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요 기업의 투자 연기, 유럽의 경기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한 4.9억 달러 수준
- 2026년 로봇 수출은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미중갈등 등에 따른 반사효과로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미국은 2025년 9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 진행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로봇 수입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음
- 로봇 수출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로봇사업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
- 삼성전자는 국내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 LG전자는 국내외 로봇 기업에 투자⁴⁾

□ (이슈 및 리스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력, 가격경쟁력 등의 제고가 필요하며 중국기업의 성장, 미국의 관세 등은 위험 요인

- 우리 로봇기업은 대부분 기술 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모델 수립, 마케팅 역량 등이 미흡하여 기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수의 우리 로봇기업은 취약한 영업기반, 투자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을 기록중
- 중국기업이 정책적 지원하에 기술력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고성장하는 점은 위험 요인
- 미국은 일부 산업용 로봇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50%의 관세를 부과⁵⁾

로봇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수출액	5.4 (34.0)	5.3 (△2.6)	4.5 (△7.2)	4.9 (△6.8)	5.1 (4.1)	5.3 (3.9)	5.5 (3.8)

주: 1) HS코드 847950(산업용 로봇), 842710(포크리프트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운송 차량), 842870(기타 무인운반로봇), 8508111000(로봇청소기) 기준
2)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혁신성장금융1부

4) 미국 서비스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 국내 로봇 기업 엔젤로보틱스 등에 투자

5) 기존 산업용 로봇(HS코드 847950)은 무관세를 유지하나 적재용(팔레타이징) 로봇(842870)은 관세 부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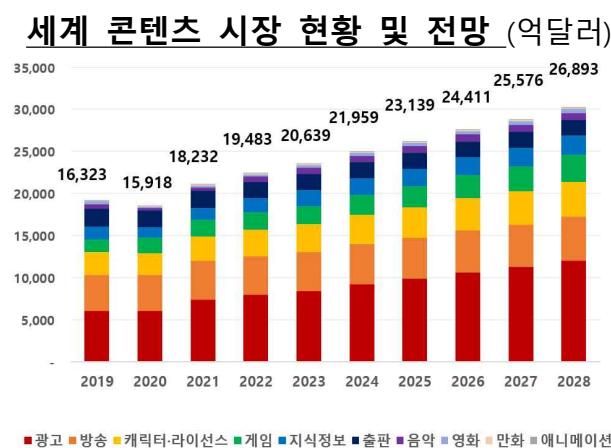
(9) K 콘텐츠

□ (글로벌 트렌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세계 콘텐츠 시장은 2028년까지 2조 6,89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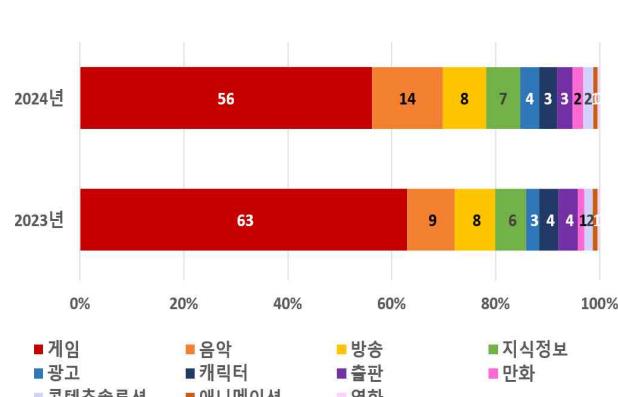
- 2025년 세계 콘텐츠 시장은 출판, 만화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성장세가 이어져 전년 대비 5.4% 증가한 2조 3,139억 달러 규모 추정
- 2022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애니메이션과 영화 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공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음악 시장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 게임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늘린 인력을 조정하면서 시장 성장세가 다소 위축됐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됐고, 방송과 출판 시장은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콘텐츠 시장 내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 2026년 콘텐츠 시장은 전년 대비 5.5% 성장한 2조 4,411억 달러 규모 전망

□ (경쟁력) K콘텐츠 수출 성장 견인해온 게임, 경쟁력 제고 중인 음악·만화

-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의 2% 비중 차지
-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게임, 음악, 영화, 만화 등은 전체 콘텐츠 시장의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전환 등에 힘입어 성장세는 꾸준
- 게임은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콘텐츠 산업 성장을 견인해 왔고, 음악은 K팝 인기로 최근 콘텐츠 산업 내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며, 만화(웹툰)는 한국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유통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콘텐츠 수출 분야별 비중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 (수출) 2025년 수출은 음악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6.6% 증가,
2026년은 공연 활성화 · 게임 수출 회복 등으로 6.9% 증가 전망**

- 2025년 콘텐츠 수출액은 음악, 방송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6.6% 증가한 145억 달러 예상
- K팝 중심의 음악 수출은 음반, 굿즈, 디지털콘텐츠, 공연 등 수익원 다각화를 통해 2024년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BTS, 블랙핑크 등 대형 아이돌 공연 재개로 2025~2026년에도 상승 흐름은 지속될 전망
- 방송은 글로벌 OTT로의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OTT 발굴 등 유통망 확대가 이어질 경우 수출 증가폭이 더욱 커질 전망
- 2026년 콘텐츠 수출액은 공연 등 음악 수출 호조세 지속, 게임 수출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155억 달러 전망
- 게임은 한한령 및 중국 시장내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 둔화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2026년에는 지연되었던 주요 게임사들의 대형 신작 게임이 다수 출시되면서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한한령 해제시 방송 · 음악 · 게임 수출 확대 가능,
영화 수출은 해외 영화관용 시장 개척이 관건**

-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제한됐던 방송 프로그램의 중국 방송사, OTT 판매와 K팝 공연, 게임 판호 발급 등이 재개되면서 콘텐츠 수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해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영화 수출의 경우 기존에 판매되던 OTT 중심 구조를 넘어 해외 영화관 상영, 해외 합작 영화 제작 등 해외 극장용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척하느냐에 따라 수출 증가 폭이 좌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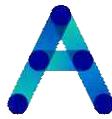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콘텐츠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망
				상반기	전 망			
수출액	132 (6.3)	133 (0.7)	136 (1.8)	65 (15.9)	145 (6.6)	155 (6.9)	162 (4.5)	169 (4.3)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다. 전통수출산업

(1) 일반기계

(글로벌 트렌드) 미국의 설비 투자는 회복세를 보인 반면, 중국의 설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둔화세

- 9월까지 제조업체 신규 주문에 따른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구입액(항공기 제외)은 6,84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여 핵심 자본재 주문의 증가세가 유지
- AI 관련 자동차, 반도체 제조용 관련 기계의 수요는 증가세 유지를, 일부의 기계 시장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9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2차 산업의 투자 증가율은 각각 4.0%, 6.3%를 기록, 특히, 기계산업 관련 투자지표는 견고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최대 설비투자국인 미국과 중국의 2025년 자본재 투자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은 투자 상승이 예상되나, 중국은 투자 둔화세가 심화됨에 따라, 기계 시장의 수요 부진 심화 예상

(수출) 2025년 수출은 중국 기계 국산화율 증가, 유럽 경기 침체로 8.6% 감소한 468억 달러, 2026년은 중동 산업기계 수출 증가로 2.8% 증가한 481억 달러 전망

- 2025년 11월까지 일반 기계 수출액(산업기계, 기계요소 공구, 기초산업기계)은 전년동기 대비 6.1% 감소한 380억 달러, 주요 품목 중 원동기 및 펌프는 1.3% 증가, 건설·광산기계는 50억 달러 유지, 기계요소는 8.9% 감소
- 11월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8% 감소한 61억 달러, 대베트남 수출은 10억 달러를 유지한 반면, 대중 수출은 3.8% 감소한 25억 달러, 대일본 수출은 9.1% 감소한 10억 달러 등 베트남을 제외한 주요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세
- 2026년 일반기계 수출은 중국, 유럽 시장의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나, 중동 인프라 및 산업 기계 수출 호조로 증가세 전환 전망
- 중국의 내수 부진에 따른 저가 물량 공세와 글로벌 수주 경쟁 심화로 수출 반등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기계 설비 투자 및 산업기계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이슈 및 리스크) 중국의 '신질생산력'6) 기반의 산업 고도화 전략에 따른 수출 기회의 축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중국은 기술 자립 목표, 기계 및 로봇 산업의 자국 내 생산 추진은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중국은 신질생산력 기반의 산업 고도화 전략에 따른 국산화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 한편, 대미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점진적 회복 가능성도 존재
- 미국은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 기조 유지로 특정 국가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부담 발생 상존
- 최근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2.0%에서 '26년 2.1%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구입액(항공기 제외)은 '25년 9월에 0.9% 소폭 반등하였으며, 기업 투자 회복 가능성은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핵심 기계 수입에 대한 대중국산 배제로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기계의 대미 수출의 위축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미국의 대중국 기술 압박은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과의 기술 경쟁 강도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음

일반기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1~11월	전망			
수출액	534 (4.6)	512 (△4.1)	380 (△6.1)	468 (△8.6)	481 (2.8)	500 (4.0)	513 (2.6)

주: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2025년 6월 공식 발표한 새로운 국가 제조 전략으로 중국 국무원에서 신질생산력 발전 촉진에 관한 보고서로 제시되었으며, 바이오, 우주항공, 반도체 등 구체적인 산업별 육성 로드맵을 확정



(2) 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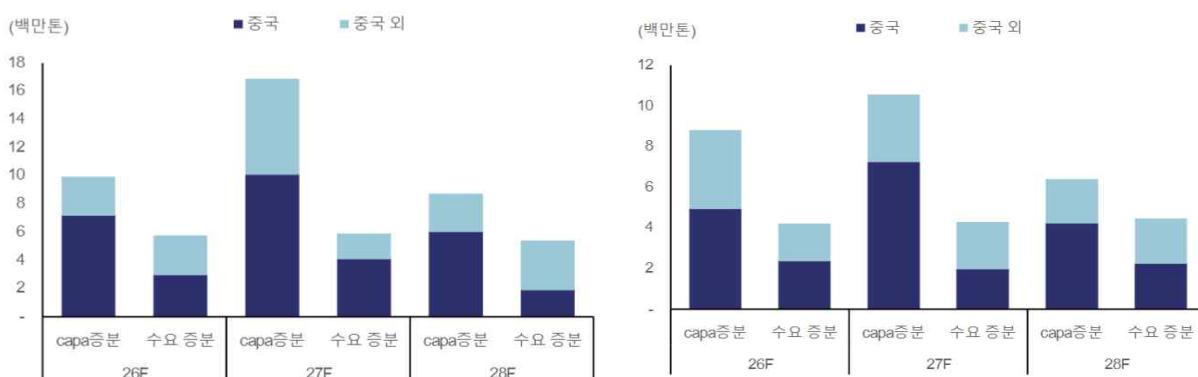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해소가 더욱 지연될 전망으로 석유화학 장기 불황 우려 지속

-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와 중국발 공급능력 확대 지속 등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2020년대 말까지 이어질 전망
 - 2020~2021년 중국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제품 자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등 중국은 석유화학제품 최대 수입국에서 수출 경쟁국으로 전환 중
 - 2022년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다운사이클 진입, 2025년 미중 무역갈등 심화, 미국발 관세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속에서 중국이 석유화학 설비증설 투자를 재차 확대*하여 단기간 내 공급과잉 해소가 어려울 전망
- * 2025~2030년 중국 에틸렌 증설 전망(전망 시점): 20백만 톤(2024.8월) → 28백만 톤(2025.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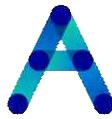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 (경쟁력) 2024년 한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1,295만 톤(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중 5.7%)으로 중국, 미국, 사우디에 이은 4위 국가(KCIA)

- (원가경쟁력) 국내 설비는 북미, 중동의 에탄크래커 설비 대비 원가경쟁력 열위에 있는 나프타크래커 설비 중심으로 구성
- 셰일가스를 사용하는 북미나 저가 천연가스 기반의 중동 업체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또한, 한국 NCC는 사우디(사다라, 450만 톤), 중국(페트로차이나, 300만 톤)의 단일 공장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절된 구조로 규모를 통한 원가 우위를 확보할 수 없음
- (제품 포트폴리오) 한국은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저부가 범용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경쟁력 취약

지역별 에틸렌(좌) 및 프로필렌(우) 수급 전망



자료: 업계자료, 한국기업평가(2025) 재인용



□ (수출) 2025년은 공급과잉, 유가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420억 달러, 2026년은 큰 폭의 유가하락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전망

- 2025년 석유화학 수출액은 최근 국내 NCC 설비증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유가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420억 달러 예상
* '25년 유가(두바이유 기준), 전년 대비 약 13% 하락한 \$69/bbl 전망
- 2025년 상반기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한 19.1백만 톤, 수출액은 11.0% 감소한 21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물량 대비 큰 폭의 수출액 감소율을 기록
- 2026년 수출액은 유가 하락 전망(약 20%↓)과 역내 공급과잉 지속 및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360억 달러 수준 예상, 구조적인 공급과잉 지속으로 2028년까지 큰 폭의 수출액 증가는 어려울 전망
- 중국발 공급과잉 지속,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이 격화될 전망으로 2028년까지 수출 증가율이 5%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관세 여파로 인한 단기 수요 약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장기 수요 둔화 및 역내 공급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 (수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약세와 함께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따른 중장기적 수요 둔화 우려 상존
- (공급)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기초유분 등의 자급률 제고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 심화 우려
- 에틸렌, 프로필렌, PP, PVC 등의 중국 자급률은 이미 100%에 도달하였고, 아로마틱, PX, PE 등도 자급률이 지속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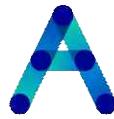
석유화학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457 (△15.9)	480 (5.0)	389 (△11.8)	420 (△12.4)	360 (△14.4)	380 (5.6)	400 (5.3)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부,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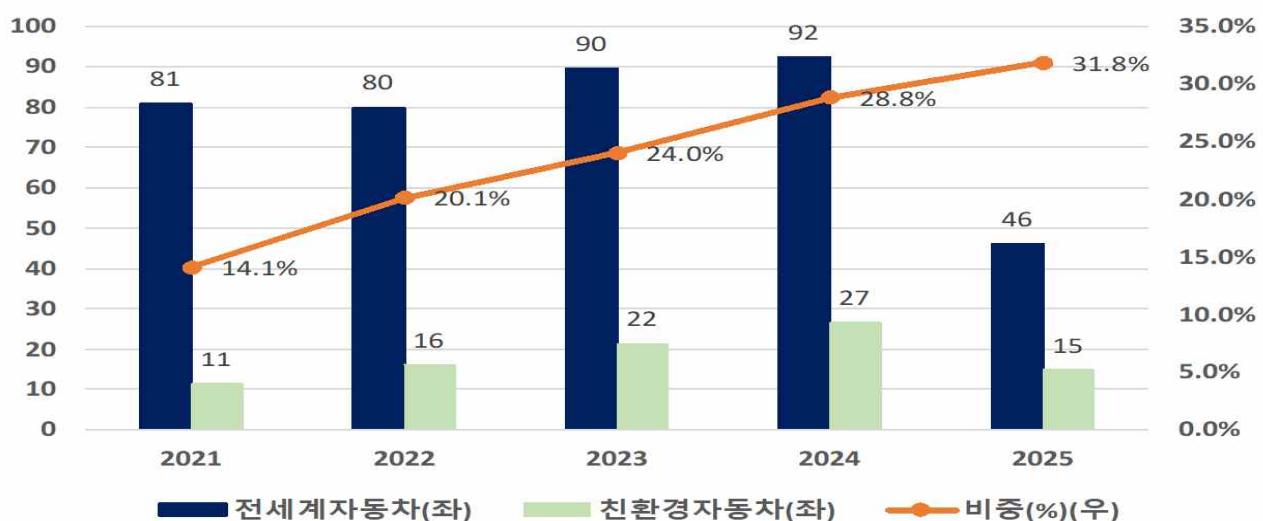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중심의 시장 성장 예상

- 2025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신흥국 소비 증가,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9,613만 대로 전망
- 중국 및 신흥국 시장 성장과 부품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 성장 전망
- 전기차의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을 대체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증가 하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성장 견인
-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2023년 24.1%, 2024년 28.8%, 2025년(11월 기준)은 36.2%로 '26년에도 3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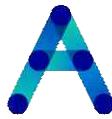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 (경쟁력) 2025년 국내 기업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 세계 판매량의 7.5% 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이어 판매량 3위를 기록할 전망

- 2025년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고,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통해 전 세계 판매량 3위를 달성했으며, 2026년에도 3위를 유지할 전망
- 최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량 비중: ('23) 12.0%→ ('24) 12.1% → ('25) 11.3%

전 세계 자동차 및 친환경차 추이(백만 대)



자료 : MarkLines



□ (수출) 2025년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960억 달러 전망, 2026년 수출액은 6.3% 증가한 1,020억 달러 전망

- 2025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725억 달러,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35억 달러로 전망
- 2025년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725억 달러 달성 전망
- 2025년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 및 센서, 반도체, 모터 등 고급 전자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4.4% 증가
- 2026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780억 달러,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40억 달러 전망
- 전기차는 탄소 배출 저감과 정부 규제에 따라 일정기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 자동차 수요를 회복시키면서 수출액 증가를 견인할 전망
-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2026년 30% 이상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40%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친환경차 비중은 글로벌 친환경차 트렌드에 힘입어 증가하겠지만 주요국의 정책 변동성과 국가별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

-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기반 시설의 확대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예상
- 유럽 연합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재활용, 미세먼지 배출 기준 강화책은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 가능

최근 자동차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자동차·부품 합계	939 (21.3)	933 (△0.6)	853 (△0.4)	960 (2.9)	1,020 (6.3)	1,043 (2.3)	1,077 (3.3)
자동차 수출액	709 (31.1)	708 (△0.1)	659 (1.5)	725 (2.4)	780 (7.6)	770 (3.4)	810 (5.2)
자동차부품 수출액	230 (△1.3)	225 (△2.2)	194 (△6.7)	235 (4.4)	240 (2.1)	260 (6.1)	275 (5.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철강

□ (글로벌 트렌드) 세계 조강생산은 인도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건설경기 침체와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감산이 지속됨

- 11월까지 세계 조강생산량은 16.6억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함
- 중국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등에 의한 글로벌 자동차, 기계 등 수요산업의 성장을 저하 등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조강생산량은 감소함
- 11월까지 중국(1위 생산국)은 전년동기 대비 4.0%, 일본(4위)은 3.9%, 러시아(5위)는 5.0%, 한국(6위)은 3.7% 각각 감산하였으나, 주요국 중 인도(2위)와 미국(3위)은 10.3%와 3.2% 증산함
- 감산 영향과 미국의 관세에 의한 보호 정책 등으로 미국 내 중서부 도매가 기준 열연코일 가격은 11월까지 평균 전년동기 대비 8.7% 상승한 톤당 850.2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동 기간 한국의 출고가는 1.1%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엇갈리는 양상임
- WSA(세계철강협회)는 2025년에 10월에 발표한 단기 전망에서 미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타격과 중국의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공투자의 증가로 2026년 철강수요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형 수요국 중 하나인 인도의 수요 증가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경쟁력) 한국은 11월까지 세계 조강생산량의 3.4%를 생산하였으며, 2개 철강사가 생산량 기준 25위 이내에 올라 있음

- 한국 철강업계는 11월까지 5,610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 조강생산량의 3.4%를 차지하며 세계 6번째 철강 국가의 위치를 유지함
- 2024년 생산량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는 3,779만 톤(세계 생산량의 2.0%)을 생산하여 세계 8위로 전년 대비 1계단 하락하였고, 현대제철은 1,836만 톤(1.0%)으로 21위를 기록하여 3계단 하락



□ (수출)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300억 달러, 2026년 수출은 유럽 관세와 탄소국경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 전망

- 2025 철강 수출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300억 달러 예상
- 글로벌 철강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정책으로 미국 수출시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고, 10월에는 EU도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발표해 국내 철강 수출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11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한 278.3억 달러
- 2026년에는 관세에 더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어 수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철강수요 증가 기대에도 불구하고 철강수출은 약 3% 감소한 290억 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철강재에 대한 미국 품목별 관세 등은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큰 불확실성 요인임

-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재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와 유럽의 쿼터 물량 초과 관세 인상으로 국내 철강재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
- 2026년부터 시행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한 철강재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동 제도로 인해 비용부담이 크게 높아지거나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어 국내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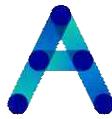
철강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分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352 (△8.5)	333 (△5.4)	278 (△8.8)	300 (△9.9)	290 (△3.3)	285 (△1.7)	300 (5.2)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석유제품

□ (글로벌 트렌드) 2025~26년 정제설비 순증설 부담 완화, 신흥국 수요 성장 등으로 정제마진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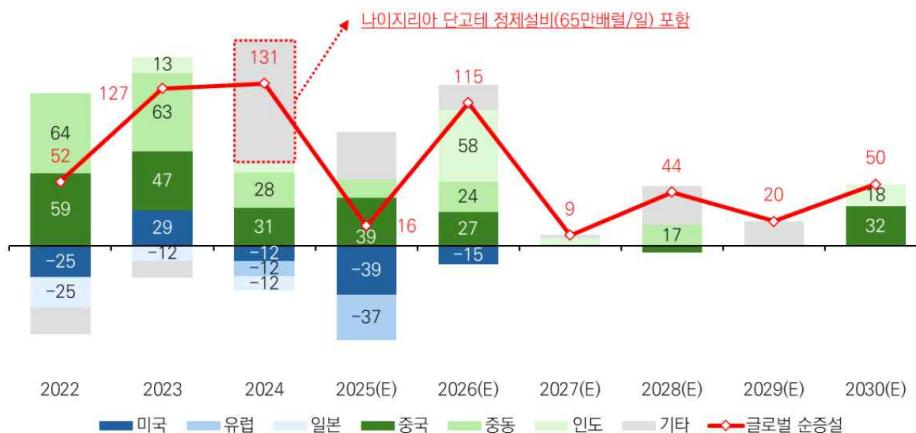
- (공급) 2025~26년 인도, 중국 및 중동 등을 중심으로 신규 정제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나, 미국, 유럽의 노후 정제설비 폐쇄 확대로 순증설 부담이 완화될 전망
- 미국, 유럽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일부 노후 정제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2025년에도 각각 35~40만 b/d 규모의 설비를 추가 폐쇄할 계획
- 이에 따라 정제설비 순증설 규모가 2023~24년에는 연간 130만 b/d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16만 b/d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026년 이후에도 선진국의 정제설비 폐쇄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027년부터는 증설 규모도 크게 감소하여 신규 설비 도입의 영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
- (수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과 전기차 보급 가속화로 운송용 석유제품 수요가 둔화되겠으나, 글로벌 항공여행 수요의 회복과 신흥국의 플라스틱/화학제품 수요 증가 등이 석유제품 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

□ (경쟁력) 한국 원유 정제능력은 336.3만 b/d(세계 정제설비 능력의 3.2%)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국가(BP 통계, 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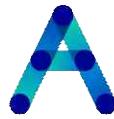
- 국내 정유설비는 중질유에서 휘발유, 등경유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고도화설비 비중이 유럽에 비해 높은 특성
- 다만, 아시아/중동 지역의 신규 고도화 정제설비가 잇따라 가동됨에 따라 제품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마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설 추이 및 전망

(단위: 만 b/d)



자료: IEA, 한국신용평가(2025.9월) 재인용



□ (수출)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한 445억 달러, 2026년 수출은 큰 폭의 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할 전망

- 2025년 석유제품 수출액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전년 대비 약 12% 하락한 445억 달러 예상
- 여름철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수출 물량이 증가(6월)하거나 제품가격 반등(9월)으로 전년동월 대비 수출액이 증가하기도 했으나, 1~3분기 전체 수출액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 4분기 유가도 전년동기 대비 약 14% 하락이 예상되어 석유제품 수출액이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석유제품 수출액은 큰 폭의 유가하락(약 20%↓)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한 350억 달러 수준 예상, 2028년까지 점진적인 유가상승에 따라 연평균 5%대의 수출액 회복세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단기적으로 원유시장 공급과잉 및 수요 성장세 둔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화석연료 수요 감소에 대응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

-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부진 여파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성장세 둔화
- 석유제품 수요 둔화에 따라 복합정제마진 역시 2025년 1~4월 배럴당 5~7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며 약세를 나타냄
- 유럽 등 선진국의 재생 디젤 및 SAF(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의무화 속도에 따라 기존 경유/항공유 시설의 수익성이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 존재
- COTC(Crude Oil to Chemicals) 개발 및 도입 추진과 기존 정제설비의 바이오제품 생산설비로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 모색
- 최근 S-Oil이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202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9조 원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통합설비인 COTC 투자 진행 중

석유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520 (△17.3)	503 (△3.2)	412 (△11.3)	445 (△11.5)	350 (△21.4)	370 (5.7)	390 (5.4)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부, 2025~2028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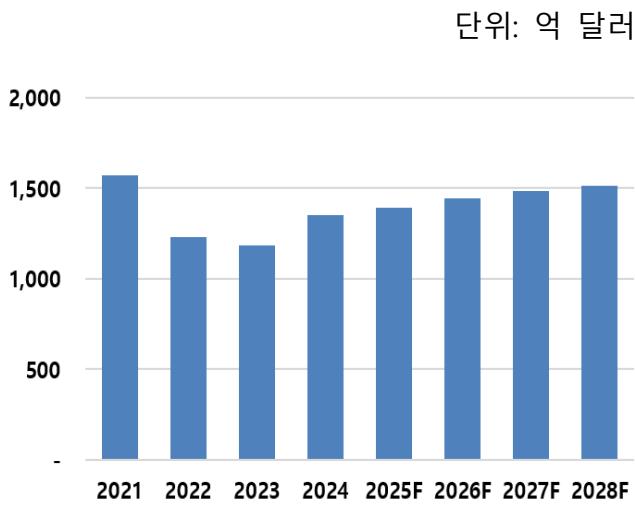
□ (글로벌 트렌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4년 1,350억 달러에서 2028년 1,514억 달러로 연평균 3% 성장 전망

- OLED 시장은 2024년 540억 달러에서 2028년 658억 달러로 연평균 5%, LCD 시장은 795억 달러에서 811억 달러로 연평균 0.5% 성장 전망
- OLED의 수요처는 스마트폰·TV 중심에서 IT기기(태블릿, 노트북), 차량용 패널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
- 2026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 대비 4% 성장한 1,444억 달러, OLED와 LCD 시장은 전년 대비 각각 5%, 1% 성장한 593억 달러와 824억 달러로 전망

□ (경쟁력) 한국은 17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LCD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2위로 이동, OLED 부문도 중국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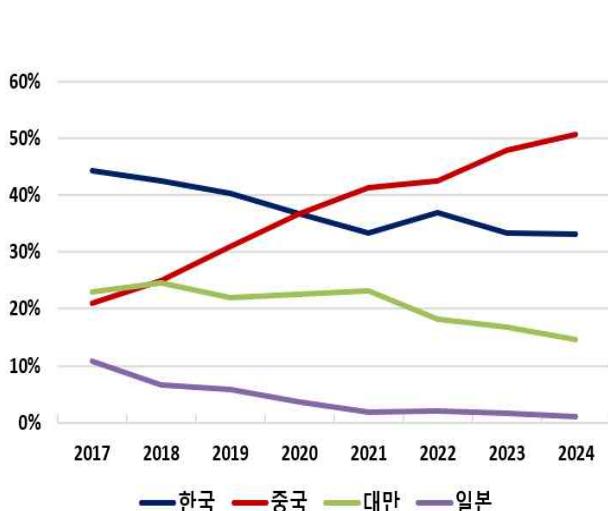
- 디스플레이산업은 한국과 중국의 양강체제로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24)은 33.1%로 중국 50.8%에 이어 2위를 기록
- OLED 점유율은 한국 67.2%, 중국 32.2%를 기록했으며,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OLED 사업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8세대 패널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을 추격중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전망



자료 : 옴디아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자료 : 옴디아

□ (수출) 2026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77억 달러 내외로 전망

- 2025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70억 달러 내외로 전망
 - 디스플레이 수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으로 TV·IT기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스마트폰 OLED 사업을 강화하면서 역성장할 전망
 - * 애플은 2025년에 출시한 아이폰17 전 모델에 LTPO(저온다결정산화물)⁷⁾ TFT를 적용했으며, BOE는 LTPO 패널을 아이폰 17 Pro 모델에 처음 공급
 - *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LCD 사업 구조조정으로⁸⁾ OLED 중심의 구조
- 2026년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 추세 지속, IT기기의 OLED 탑재율 상승 등으로 디스플레이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아이폰18은 차세대 LTPO 패널을 탑재하며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BOE의 패널 공급량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이슈 및 리스크) 한국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OLED 가격경쟁력 제고, R&D 투자 확대, 수요처 다변화 등이 필요

- 중소형 OLED는 한중기업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TV용 OLED는 LCD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시장 확대가 제약받고 있어 OLED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OLED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장비·소재 개발, 소재 사용 효율화 기술 개발 노력 등이 요구됨

디스플레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 망	2027년 전 망	2028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186 (△12.1)	187 (0.9)	155 (△17.3)	170 (△9.3)	177 (4.3)	187 (5.5)	19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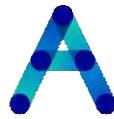
주: 1) MTI 8361 기준

2)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2028년 전망은 혁신성장금융1부

7) 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 LTPS(Low Temperature Poly-Silicon) 대비 저전력 등의 장점 보유

8)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철수,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TV 패널 생산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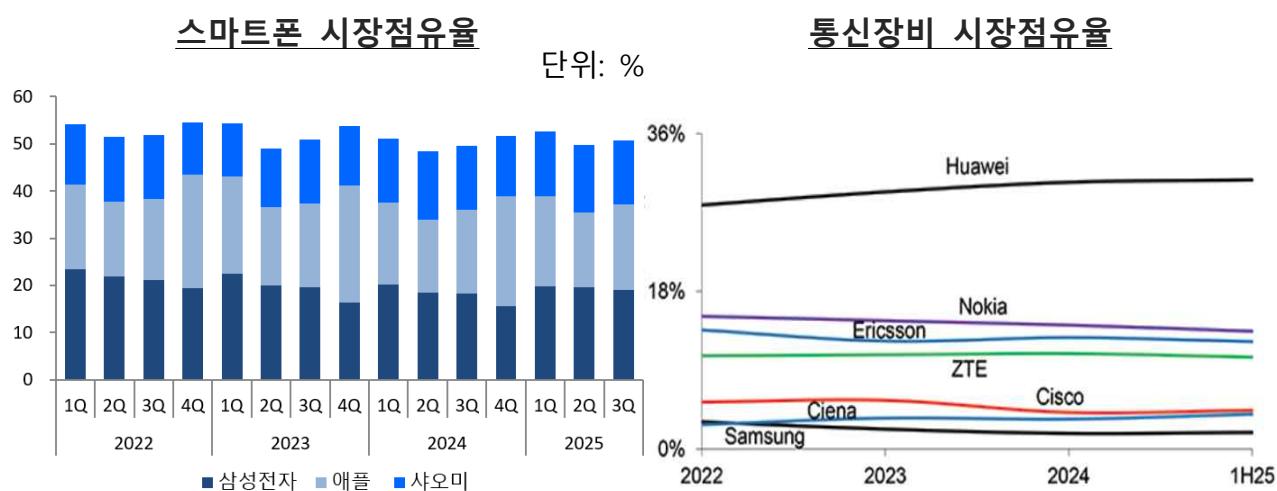
(7) 통신기기

□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통신산업은 성숙기에 위치하여 약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6년에 전년 대비 1~2% 역성장하고, 2027~2028년에는 연간 1~2% 성장할 전망
- 2026년에 스마트폰 브랜드는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부품 가격상승 등에 스마트폰 가격 인상, 중저가폰 출하량 축소, 부품 사양 조정 등으로 대응할 전망
-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은 2025년에 전년 대비 2~3% 성장하나 2029년 6G 상용화 이전까지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
-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완료 구간에 접어들면서 신규 장비 수요는 감소 추세
- 2025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성장은 2024년 통신장비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 과잉 재고 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임.

□ (경쟁력) 우리기업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위를 유지,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7위에서 정체

- 2025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9.0%로 1위를 수성하고 있으나 샤오미 등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경쟁 심화
- 2025년 상반기 기준,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31%로 독보적인 위치를 수성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 수준에서 정체됨
- 중국 화웨이와 ZTE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미국의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41%를 기록



자료 : IDC.

자료 : 델오로.

□ (수출) 2026년 수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70억 달러 내외로 전망

- 2025년 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168억 달러 수준
- 2025년 1~11월 기준 휴대폰 수출은 경쟁심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한 130억 달러를 기록
- 2025년 1~11월 기준 통신장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
- 2026년 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70억 달러 내외로 전망
- 휴대폰 수출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등을 계기로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부가 부품 수출도 증가할 전망
- 통신장비 수출은 미국의 신규 주파수 경매, 인도 등의 5G 투자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이슈 및 리스크) 스마트폰 시장은 부품 가격상승 등으로 완제품 수요 둔화 등의 리스크가, 통신장비 시장은 저성장 리스크가 있음

- (휴대폰)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 등으로 완제품 수요가 감소할 경우 휴대폰 수출도 영향을 받을 전망
-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 가격상승, 스마트폰 성능의 상향 평준화 등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통신장비) 이동통신사의 설비투자 축소 등으로 신규 통신장비 수요가 감소 위험이 있음

통신기기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2028년 전망
			1~11월	전망			
수출액	152 (△13.3)	167 (9.7)	151 (△2.0)	168 (0.5)	170 (1.1)	174 (2.4)	174 (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2028년 전망은 혁신성장금융1부